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襄陽文化院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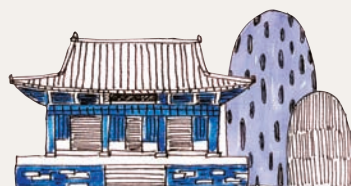


襄陽文化院



목 차

낙산사	■ 위치와 창건 ----- 4
	■ 낙산사에 깃든 불교 설화 ----- 7
	■ 성보문화재 ----- 15
	■ 가람 및 전각 ----- 23
	■ 낙산사 연혁 ----- 31
영혈사	■ 위치와 창건 ----- 36
	■ 영혈사와 함께하는 전설 ----- 37
	■ 성보문화재 ----- 39
진전사	■ 위치와 창건 ----- 46
	■ 진전사지 발굴 ----- 48
	■ 성보문화재 ----- 49
	■ 진전사 복원 불사 ----- 51
성국사 (오색석사)	■ 위치와 창건 ----- 54
	■ 무염선사 ----- 55
	■ 폐사와 관련한 전설 주전골 ----- 56
	■ 성보문화재 ----- 57
명주사	■ 창건 및 연혁 ----- 62
	■ 명주사 관련 고승 및 설화 ----- 64
	■ 성보문화재 ----- 67



낙산사



낙산사



■■■ 위치와 창건

오봉산(五峯山) 낙산사(洛山寺)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낙산사로 100)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이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년)에 의상(義湘)대사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진용(眞容)을 빚고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義湘, 625년~702년)은 고대 통일신라 시대 중기의 왕족 출신의 고승이다. 그는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여 중국 화엄종 제2대 조사인 지엄(至嚴)으로부터 화엄종(華嚴宗)을 수학하고 법통을 이어받아서 한국 화엄종(華嚴宗)의 시조가 되었다. 호는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海東華嚴始祖圓敎國師)이며, 아버지는 신라의 진골 귀족 김한신 장군이다.



낙산사 가람 전경



삼국유사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조에는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의상대사는 물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외쳤던 원효 스님(617년~686년)과 관련된 설화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굴산파(闍崛山派)의 개조인 범일국사(梵日國師 810년~889년)도 정취보살(正趣菩薩)에 얽힌 전설과 함께 낙산사 중창에 참여하게 된 인연도 소개되고 있다.

13세기 고려를 침입한 몽골은 절을 불태우고 불상의 복장 유물을 도굴해 가는 등의 참사를 격었다. 그 후 무신정권의 실권자인 최우(崔瑀, ?~1249)의 후원(1230년대 중, 후반으로 추정)으로 중창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낙산관음복장수보문명송(洛山觀音腹藏修補文并頌)에 전한다.

의상대사가 천룡팔부(天龍八部)에게 받은 수정염주(水晶念珠)와 동해옹의 여의보주(如意寶珠)를 몽골군의 침입에도 헌신으로 지켜냈으나 1273년 원나라 사신 마강이 왔다가 왕후(王后)가 “보고자 한다”는 핑계로 3월에 돌아가면서 원나라로 강제 이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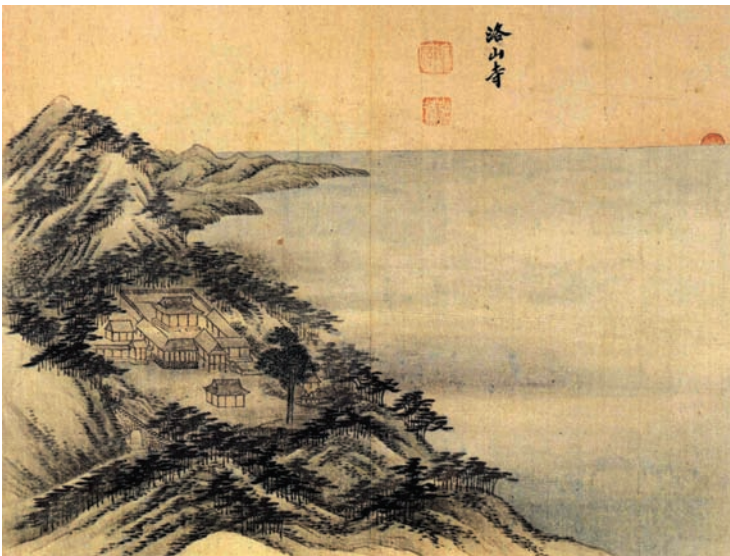
신라와 고려에서 국교로 인정받던 불교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승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존속의 위험까지도 느끼게 됨에도 불구하고 낙산사는 왕실과의 인연으로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았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봄과 가을에 신하를 파견하여 재(齋)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는 갑령(甲令)을 향상하는 일)으로 남겨 후대 왕들도 재를 봉행토록 하였다.

역대 왕 중 가장 불심이 돈독한 세조(世祖)는 퇴락한 낙산사를 방문하여 1466년(세조 12년)에 중창(重創) 불사(佛事)를 지시하여 1468년 완공을 하였다. 이때 가람이 전체적으로 형태를 갖추었으며 칠층석탑(七層石塔), 홍예문(虹霓門), 원통보전(圓通寶殿)의 담장인 원장(垣牆) 등의 중요 문화재가 조성되었다. 낙산사 동종(洛山寺 銅鐘)은 조선 예종이 1469년(예종 1년) 그의 아버지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한 종이다.

세조의 중창 불사를 훌륭하게 마친 학열(學悅 ? ~ 1484) 스님은 세조 승하(昇遐) 후 대신들의 표적이 되어 어디서 입적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며 유가(儒家)적 시각에서 악의적인 왜곡과 비판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한다.

조선 중기에는 성종부터 시작하여 연산군과 중종에 의해 불교가 탄압을 받은 시기로 성종(成宗)은 낙산사에 3가지 특혜(1, 화재 예방을 위해 낙산사를 멀리 돌아가는 새로운 길, 2, 소금을 구워서 유점사와 낙산사에 보관, 3. 낙산사 앞 20여리 안에서의 해산물 채취금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



겸재 정선의 낙산사도

조선 후기에도 두 번의 커다란 재난이 있었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대화재(大火災)이다. 임진왜란(1592년)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세부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그 후 1631년 인조 9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가람 전체가 크게 소실되었다.

이 밖에도 낙산사에는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통일 신라대인 786년, 통일신라 후기인 10세기 초반, 조선 정조 원년인 1777년, 1950년 6·25 전쟁, 2005년 4월 5일 대화재 등이 있다. 이런 병화(兵火) 때마다 중창을 거듭하여 법등(法燈)을 이어온 장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 말기인 1895년에는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령(都城出入禁止令)이 해제되어 압박이 줄었으며 일제 강점기인 20세기 초반에는 31본말사법(三一本末寺法)에 의하여 건봉사의 말사로 지정되었으며 금당 요사채 등 100여 칸이 넘었다고 한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 사찰 내 전체 당우(堂宇)가 불에 타서 큰 타격을 입었으나 1군단장인 이형근 장군에 의해서 1953년 4월에 원통보전이 완공되어 중창불사 점안식을 거행했다.

낙산사의 상징이 된 해수관음보살상(海水觀音菩薩像)은 1972년에 원철(圓徹)스님이 화강암으로 높이 11m의 입상(立像)을 완공하여 1977년 11월 6일 점안식을 가졌다. 보타전은 1993년에 완성되었으며 천수관음을 비롯한 7관을 봉안하였다. 모든 관음상의 재질은 백두산 홍송(紅松)으로 제작하였다.

2005년 4월 4일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禾日里)에서 발화된 불이 4월 5일 오봉산으로 번져 흥련암 등 몇몇 당우만 남기고 모든 전각과 요사채가 소실되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물 제479호인 범종(梵鐘)이 용해(鎔解)로 훼손되었다.



2005년 4월 5일 화재 후 원통보전과 가람



2009년 낙산사 복원 후 원통보전과 가람

잣데미 속에서도 복원 불사의 염원과 온정에 힘입어 발굴을 시작하여 원통보전은 세조 때가 최대 규모였음을 확인하고 사역의 배치는 17~18세기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참고하여 발굴과 복원을 동시에 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낙산사 발굴보고서)

2005년부터 제3교구 설악산문(雪嶽山門)의 무산(霧山) 대종사의 격려와 낙산사 주지 금곡(金谷) 정념(正念) 스님의 원력(願力)에 힘입어 2009년에 대부분의 가람을 완성하였다.

또한 관음보살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5년 정념스님이 낙산사 복지 재단을 양양읍 내에 설립하였다. 낙산사 상락원에서는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노인 복지 센터에서는 노인 주간(晝間) 보호를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주간 보호 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매일 250인분)도 운영하고 있다.

무산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초, 중학생의 여가 공간과 공부방을 운영 중이며, 1985년 개관한 낙산 유



치원을 2007년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여 140여명의 원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9년 낙산 포교당을 양양 중·고등학교 입구에 개축 운영하고 있다.

2003년 4월부터는 불교대학을 개강하여 매년 주 1회 수업으로 2학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쟁이 극심한 현대 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과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극복하고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낙산사의 어느 전각이나 보물보다도 감동적이고 눈에 띄는 것은 “길에서 길을 묻다”와 “꿈이 이루어 지는 길”이란 선문 답이다.

■■■ 낙산사에 깃든 불교 설화(說話)

낙산사에는 의상대사, 원호대사, 범일국사와 정취보살 이야기, 조신의 꿈, 파랑새를 만난 유자량 등 관세음보살과 관련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 삼국유사 이대성조의 원호스님이 관음보살을 친견하려 했으나 응신(應身)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장면은 우리의 예단을 뛰어넘는 설화의 백미이다. 이 밖에도 낙산사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펼쳐 본다

● 의상대사 행장(行狀)

의상(義湘, 625년 ~702년)은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이다. 생애는 부석본비(浮石本碑)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전한다.

20세에 출가하여 650년(진덕여왕 4년)에 사형(師兄) 원호(元曉)와 함께 당나라에 가던 중 고구려에서 장애(障礙)를 당해 당항성의 어느 동굴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이때 해골에 끈 물을 마신 원호는 도의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一切唯心造)하여,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여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의상대사 표준영정
(출처: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포털)



원호대사 표준영정
(출처: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포털)

그 후 신라의 삼국 통일의 혼란 와중에도 661년(문무왕 1) 당나라 사신의 귀국 배편에 동승하여 건너가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지엄(至嚴)의 문하에서 현수(賢首)와 함께 깊이 깨달았다. 현수는 지엄의 뒤를 이어 중국 화엄종의 제3조가 되고, 의상은 귀국 후 한국 화엄종의 시조가 된다.

670년(문무왕 10)에 귀국하여 관음굴(觀音窟)에서 기도하고 낙산사를 671년에 창건하고, 676년 왕의 뜻을 받아 봉황산 부석사를 창건, 화엄 교학을 강술하여 해동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692년(효소왕 1)에 당(唐)의 현수는 신라 유학승 승전(勝詮)이 귀국할 때 그의 저술 “화엄경탐현기”와 서신을 보냈는데, 그 친필 서신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의상은 문하에게 이것을 강술하면서 전교(傳敎)에 전심하다 열반하였다. 세수 향년 78세였다.

후일 고려 숙종은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海東華嚴始祖圓敎國師)라 시호하였다. 의상의 문하에는 뛰어난 10대 대덕(大德)과 전교(傳敎)의 10대 대찰(大刹)이 있었다.

의상의 귀국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당나라는 삼국 통일을 원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취한 것에 노하여 신라 승상 김흠순(金欽純)을 잡아 가두었다. 당 고종(高宗)이 신라에 대거 출병코자 한 기미를 김흠순 등에게 듣고 급히 귀국하여 왕께 고하고 명랑(明朗)이 밀단법(密壇法)을 베풀어 화를 면했다고 한다.

● 낙산사를 창건(創建) 설화

① 삼국유사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조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공부한 뒤 돌아왔을 때 대비진신(大悲眞身)이 이 해변 굴속에 계시기에 낙산이라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동해룡으로부터 여의보주를 받음



낙산사 창건

의상은 엄숙하게 수행한 지 7일 만에 자신이 앉는 좌구(坐具)를 물에 띄웠더니 천룡팔부(天龍八部)의 시종이 굴속으로 안내하였다. 따라가서 참례하니 천룡팔부가 공중에서 수정염주(水晶念珠) 한 벌을 주기에 받아왔다. 동해룡(東海龍)이 또한 여의보주(如意寶珠) 한 벌을 주기에 이를 받아서 물러 나왔다.

다시 7일 동안 수행하여 드디어 관세음보살의 진용(眞容)을 보니, “이 자리 위의 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雙)이 돌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땅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 이에 금당을 짓고 소상(塑像) 흙으로 불상을 만들)을 봉안하니, 그 원만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질이 엄연히 하늘에서 난 듯했다. 대나무는 곧바로 없어졌으므로 바로 이곳에



관음의 진신이 거주함을 알았다.

이로 인해 그 절을 낙산사라 하고서 법사는 그가 받은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나갔다. 이상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하는 낙산사의 창건 연기 설화이다

② 석익장(釋益莊)의 「낙산사기(洛山寺記)」

익장스님의 낙산사기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한다. 양주(襄州) 동쪽 강선역(降仙驛) 남쪽 동리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몇 리쯤의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백척 가량이고 크기는 곡식 만섬을 실은 배라도 드나들 만하다. 그 밑에는 항상 바닷물이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멍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관음대사(觀音大士)가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 굴 앞의 50보쯤 되는 바다 가운데 돌이 있고, 돌 위에는 자리 하나를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에 신라 의상대사가 친히 성룡(聖龍)을 뵈고자하여 돌 위에서 자리를 펴고 기도했다. 14일이나 정성을 다했지만 볼 수가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바닷속 동해 용이 부축하여 돌 위에 올려놓으니 관음대성(觀音大聖)이 굴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가 없다. 다만 굴 위의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이 나의 이마 위다. 거기에 불전을 짓고 상을 봉안하라.”라고 했다.

용(龍)도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쳤다. 법사가 여의주를 받고 가서 보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 불전을 짓고 용이 준 옥으로 상을 조성해서 봉안하니 바로 이 절이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파랑새가 나타난다고 한다.

두 기록 중 낙산사기가 약 50년 앞서는데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같으며, 관음 진신이 일러 준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낙산사를 창건했다는 내용만은 일치한다. 이로써 서역의 보타낙가산처럼 낙산사에도 관음의 진신이 상주한다는 신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용이 된 선묘낭자의 도움으로 신라로 무사 귀국



선묘낭자의 도움으로 부석사 창건

● 헌신과 희생의 선묘낭자(善妙娘子)

의상은 699년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기 위하여 당나라 산둥반도 북쪽 등주(登州)라는 바닷가에 도착하여 신심이 깊은 신자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집 주인에게는 아리따운 용모의 선묘(善妙)라는 딸이 있었다. 선묘는 의상을 지켜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의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으나 의상은 불교의 깨달음에 전력하면서 담담하였다. 이때 선묘는 영원히 의상을 따를 것을 결심하고 공부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의상이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선묘의 집에 들러 그간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배를 타러 갔다.

의상이 떠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선묘는 급히 배 타는 곳으로 가보았지만 이미 저만치 떠나가고 있었다. 선묘는 의상이 입을 옷과 여러 물건을 담은 상자를 배를 향해 던져 의상에게 전하고는 ‘스님이 무사히 돌아가 불교의 교리를 잘 펼치시게 해주십시오.’ 하며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당시는 배가 작아서 조그만 파도에도 뱃길이 매우 위험했는데 선묘가 용으로 변하여 의상이 탄 배를 보호하여 무사히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신라에 도착한 의상은 낙산사를 창건하고 법석(法席)을 다진 다음 화엄 사상을 펼칠 곳을 찾아 경상북도 영주시 봉황산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다른 종파의 스님들이 수백 명이나 살고 있어 의상의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이때 선묘가 큰 바위로 변하여 절의 건물 위를 덮어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로운 상황을 만드니 스님들이 놀라고 두려워 모두 도망갔다. 그 일 이후 의상이 그곳에서 화엄경을 날마다 강론하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교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의상은 큰 바위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절의 이름을 ‘부석사(浮石寺)’라고 지었다. 현재에도 부석사에는 부석(浮石)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용이 된 선묘가 변하였던 바위라고 전해진다.

● 삼국유사의 이대성조의 원효(元曉)스님과 관음보살

원효(元曉) 스님께서 의상 스님이 관음을 친견했다는 소문을 듣고 뒤질세라 푸른 동해를 벗삼아 몇 날을 걸어서 낙산 남쪽 교외에 이르니 논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롱하여 그 벼를 달라고 청하였더니, 여인도 희롱 삼아 벼가 흥작이라고 대답하였다.

법사가 또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인이 월경(月經) 때 입던 옷(月水帛)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마실 물을 청하니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주었는데, 법사는 이를 얹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에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있다가 법사를 불러 말하기를, “제호(醜鬪)를 마다한 이 화상(和尚)아!” 그리고는 날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소나무 아래에는 벗어 놓은 신발 한 짝이 있었는데, 법사가 이윽고 절에 이르니 관음상 아래에 앞서 보았던 벗어 놓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그제야 좀 전에 만난 성스러운 여인이 곧 관음의 진신임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 하였다.

법사가 관음굴에 들어가서 다시 관음의 진용을 보고자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 삼선수(三仙水)와 신선봉(神仙峯)

삼선수는 본래 홍련암 서쪽 해수관음전 후원에 있었던 샘물이다.

원효스님이 하루는 영혈사(靈穴寺)에서 세수를 하다가 문득 말했다. “낙산은 관음도량이라 수 천만인이 오가는 곳인데 식수가 없다는 것이 유감이구나!” 그러더니 잠고 있던 석장으로 땅을 찌르며 문수보살의 주문을 외우면서 낙산을 가리켰다. 그 후부터 낙산사에는 식수가 풍부하게 되었고 영혈사의 식수는 1/3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의상스님이 홍련암 서쪽 봉우리에는 신선이 노닌다고 말했다. 그 뒤 하루는 백발 노인 세분이 산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고 산 위로 올라갔으니 이들이 신선이었다. 이후부터는 이 우물을 세분의 신선이 마셨다 하여 삼선수(三仙水)라 불렀다. 해수관음상이 있는 산을 신선이 노닌다하여 신선봉(神仙峯)이라 하였다.

● 범일국사(梵日國師)와 정취보살(正趣菩薩)

굴산산문(崛山山門) 개산조(開山祖) 범일국사는 836년 입당(入唐)하여 남종선의 드높은 경지를 체득한 선승으로 현재에



도 매년 5월 단오 때가 되면 “강릉대관령국사성황제”의 주신으로 모셔지는 민중에게 친근한 어른이다.

『삼국유사』에는 범일국사가 당나라의 명주 개국사에 이르렀을 때 왼쪽 귀가 없어진 한 스님이 여러 스님의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범일국사에게 말했다. “저는 스님과 같은 신라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명주 익령현(翼嶺懸, 지금의 양양군) 경



범일국사 진영



정취전

계의 덕기방(德耆坊)입니다. 조사께서 훗날 본국에 돌아가시면 꼭 저의 집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이윽고 범일국사는 여러 총림으로 두루 다니며 선에 정진하다가 마조도일선사의 제자인 염관제안선사에게 법을 얻고 847년 귀국하여 당시 명주의 호족으로 이름 높은 도독 김공의 초청에 의해 굴산사를 세우고 선의 가르침을 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858년 2월 보름밤 중국의 명주 개국사에서 만났던 스님이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옛날 명주 개국사에서 조사께서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깜짝 놀란 국사는 꿈에서 깨어나 사람들과 함께 익령 경계로 찾아가서 그 스님이 있는 곳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낙산(洛山) 아랫마을에 사는 여인을 찾아서 사는 곳을 물으니 덕기라고 했다. 그 여인에게는 여덟 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마을 남쪽 돌다리에 놀았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매일 누구랑 그렇게 노니.” 아들은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와 같이 노는 아이들 가운데는 금빛이 반짝이는 아이도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국사에게 고했다.

국사는 놀라고 기뻐하며 돌다리 밑에 가서 찾아보니 물속에 왼쪽 귀가 없는 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사는 그 석상의 얼굴이 옛날 개국사에서 만났던 스님과 같음을 알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석상은 바로 정취보살상이었다.

이에 간자(簡子; 점치는 뗏조각)를 만들어 절을 지을 곳을 점쳤더니 낙산 위가 제일 좋다 하여 그곳에 법당 세 칸을 세우고 정취보살상을 모셨다. 이로써 낙산사는 관음신앙에 정취보살의 지혜를 수렴하게 되었다.

● 조신의 꿈(調信之夢)

삼국유사 제3권 탑상(塔像)편에 실린 대표적인 꿈 이야기로, 조신설화(調信說話)라고도 한다.

조신은 신라의 스님으로 세규사(世達寺)의 농장 관리인으로 파견되어왔다. 스님은 고을 원님 김흔공의 딸을 홀로 연모하여 낙산사 원통보전에서 원님 딸과 인연 맺을 수 있기를 관음보살께 몰래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조신은 관음보살상 앞에서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꿈에서 낚자가 '저도 속으로 스님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뜻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자 다시 왔습니다.'

조신은 매우 기뻐 낚자와 고향으로 돌아가 자녀 다섯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가난하여 생계를 꾸리기조차 어려웠다. 10여 년을 돌아다녀도 웃은 찢어지고 열다섯 살 큰아이는 굶어 죽어 익령(翼嶺, 양양 옛이름)의 해현(蟹峴, 기정리

와 사천리 사이 고개)에 묻고 네 아이와 우곡현(강릉 옥계) 길가의 뒤틀집에 살았으나 늙고 병들어 굶주림에 일어나지도 못했다. 열살된 딸이 동냥을 나가서 개에 물려 돌아와 늙자 부모는 흐느꼈다. 내가 당신과 만났을 때는 나이도 젊어 좋은 음식 나누었고 옷도 함께 지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15년, 정은 쌓였고 사랑은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젊은 얼굴에 예쁜 웃음은 풀잎 위의 이슬 같고 굳고도 향기롭던 기약도 한갓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구려! 당신에게는 내가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난 환락은 번뇌의 계단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굶어 죽기보다는 헤어져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경(順境)일 때는 붙들고 역경(逆境)일 때는 버리는 것이 못 할 짓이기는 합니다만 헤어짐도 만남도 운명입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합시다.

아이들을 나누어 헤어지려 할 때 아내가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서로 잡았던 손을 막 놓고 길을 나서려 할 때 조신은 꿈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라 일어나니 관음보살상 앞이고 쇠잔한 등불은 어스름한 불그림자를 너울거리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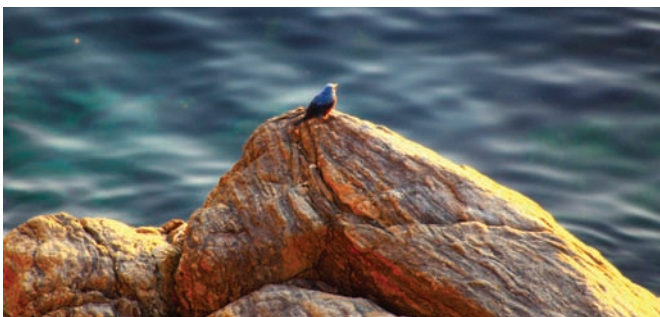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조신은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세어 있었다. 낮이 나간 듯하고, 인간 세상의 고된 염증을 느껴 백년의 신고(辛苦)에 시달린 것 같았다.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니 관음보살을 대하기가 부끄러웠다.

해현에서 아이 묻은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왔다. 깨끗이 씻어서 낙산사에 봉안하고 경주로 돌아가 장원 관리 임무를 벗었다. 그리고 사재(私財)를 털어 정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업(善業)을 닦았다. 그 뒤 조신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 파랑새를 만난 유자량

고려 명종 때(1197년) 유자량이 병마사(兵馬使)가 되어 10월에 이곳 관음굴 앞에 와서 분향 배례(拜禮) 하였더니 파랑새가 꽃을 물고 날아와 복두(幘頭:급제한 사람이 쓰는 관)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이후 유자량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한 명관이 되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한다.



홍련암 앞 파랑새



홍련암(관음굴)

● 낙산사 창건 설화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고려 시대에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또는 양류관음도(楊柳觀音도)라 불리는 불화가 있다.



불화의 특징은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춘 관음보살이 화면 중앙에서 바위에 걸터앉은 커다란 모습으로 그려지고 주변은 울퉁불퉁한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관세음보살의 뒤편에는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고 오른쪽 대나무는 입이 무성하다. 이중 버들가지 줄기를 들거나 이것을 정병에 꽂은 것은 양류관음도라 하기도 한다.

관음보살이 반 가부좌한(서 있는 모습도 있다) 발아래 연꽃이 있고 주위에는 물결이 출렁인다. 그림 맨 아래에는 한 동자가 무릎 꿇고 합장하며 위를 쳐다보는데 관음보살과 눈이 이어지게 된다. 이 동자가 선재동자(善財童子)로 구도(求道)를 위해 보살을 친견 중이다.



수월관음도(출처:불교신문)



양류관음도(출처:불교신문)

이 불화는 낙산사 창건 설화가 그대로 불화로 이어진 것으로 10세기 초엽부터 나타나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

● 교룡(蛟龍)과 관음보살

낙산사 창건 설화에는 관세음보살과 동해용이 등장한다. 불가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다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낙산사에는 곳곳에 용상과 용의 단청이 조성돼 있다. 원통보전 현판 바로 밑을 자세히 보면 용머리에 뿔이 없고 이마에 하얀색의 둥근 돌기만 있을 뿐인데 바로 교룡(蛟龍)이다. 관세음보살을 모시기 위해 동해 용왕이 시복(侍伏)하고 있는 것이다. 『역락재집』의 「답동해부」에는 '동해는 교룡의 집이다'라는 글이 남아 있다.

교룡은 몸이 청색이며 머리에 뿔 대신 흰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람의 단청을 보면 교룡과 함께하는 청용이 대부분 그려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원통보전 불단에도 교룡이 조각돼 있다. 흥예문에서 선열당으로 이어지는 길가의 수로에서도 교룡이 보인다. 이 밖에도 원통보전 주변 전각에 여기저기에도 교룡이 그려져 있는데 용은 물에 살기에 화재 예방의 의미와 함께 이곳에 진정한 관음보살이 계심을 일깨워준다.

● 두 가지 소원(所願)을 들어주는 삼족섬(三足蟾)

해수관음상 앞에서 절을 하다 보면 불전함 아래에 숨어있는 두꺼비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삼족섬(三足蟾)이다. 흥련암과 몇몇 당우의 주춧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족섬(三足蟾)은 다리가 세 개인 두꺼비인데 앞다리 두 개는 정상이지만 뒷다리는 한 개만 달려있다. 뒷다리가 하나다 보니 다리가 엉덩이 가운데 위치하여 항문(肛門)이 없어서 먹기만 하고 배설(排泄)을 못 하는 구조이다. 삼족섬은 돈을 주



해수관음보살상 앞 복전함 비익조와 삼족섬



홍련함 복전함과 삼족섬

식(主食)으로 하는 동물로 먹이인 돈을 먹고 배설은 하지 않으니 부자가 된다는 논리이다.

삼족섬을 만지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의 손때를 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삼족섬은 깊은 연못에 살면서 함께 사는 주인에게 돈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부자가 되게 하고, 또한 신족통(神足通)이 있어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 화목(和睦)의 상징 비익조(比翼鳥)

낙산사 원통보전 상단과 해수관음상 앞 불전함에는 사람 몸에 날개를 각각 하나씩만 가진 반인반금(伴人伴禽)의 조각상을 보았을 것이다. 이 새가 아미타 부처님(阿彌陀佛)이 계신 극락에만 사는 비익조(比翼鳥)이다. 우리는 부부 중 누



원통보전 내의 비익조

군가가 먼저 운명하면 반쪽을 잃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본래 비익조는 날개와 다리, 팔이 각각 하나뿐인 새로 암수 두 마리가 서로 짝을 이뤄서 한 몸으로 합쳐야만 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비익조는 부부간의 화합, 형제간의 우애 등을 상징한다.



■■■ 성보문화재

7세기 후반에 해동의 화엄종조가 세운 관음신앙의 발원지 낙산사는 그 깊은 역사만큼이나 사찰과 관련한 유물과 유적은 물론 무형의 유산도 매우 많다.

현존하는 문화재로는 보물 3종, 사적 1종, 명승 1종, 강원도의 유형문화재 3종, 강원도 문화재자료 1종이 있다.

보물로는 낙산사 7층석탑(제499호)과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1362호),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1723호) 등 3종이다. 사적 495호는 낙산사 일원으로 2008년 12월 18일에 지정 되었으며, 명승 27호는 의상대와 흥련암으로 2007년 12월 7일에 지정되었다.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로는 낙산사 홍예문(33호), 낙산사 원장(34호), 낙산사지(35호), 낙산사 의상대(48호)가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36호는 흥연암으로 1984년 6월 2일에 지정되었다.

안타깝게도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범종(梵鐘)은 2005년 산불 당시 고열에 녹아 크게 훼손되어 복원은 되었으나 2005년 7월 7일 보물에서 해제되었다. 또한 늘 시인 묵객들이 찾던 이화정(梨花亭)도 자취가 사라져 장소만 짐작할 뿐이다. 2005년 산불로 인하여 몇몇 당우를 빼고는 모두가 최근에 신축되어 선열들의 열과 땀의 손길이 모두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쉽다.

● 낙산사 7층 석탑(洛山寺七層石塔, 보물 제499호)

이 석탑은 창건 당시 3층으로 조성하여 천룡팔부로부터 받은 수정 염주(念珠)와 여의주를 탑 속에 봉안하였던 탑으로 1466년 세조(12년)의 명으로 학열대사가 1467년에 현재의 7층으로 조성한 탑이다.

높이 6.2m, 둘레 4.7m의 석탑으로, 상부의 1.5m 부분은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탑의 받침이 되는 기단부(基壇部)는 정사각형의 바닷돌 위에 밀돌을 놓았는데 윗면에 24잎의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부(塔身部)는 지붕돌과 몸돌을 1층으로 하여 7층을 이루고 있다. 각 층의 몸돌 아래로는 몸돌보다 넓고 두꺼운 괴임이 1단씩 있어 특징적이다. 지붕돌은 경사면이 평탄하며 네 귀퉁이의 들림이 잘 어우러져 전체적인 모양이 경쾌하다.

탑의 머리인 장식부는 찰주를 중심으로 원나라의 라마탑(喇嘛塔)을 닮은 여러 장식이 보존되고 있어 또 다른 특징이다. 본래 상륜부는 오동(烏銅)으로 장식되었으나 1951년 1.4후퇴 때 없어지고 지금 것은 그 후에 새로 엮은 것이다. 고려 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전체의 조형이 더욱 간략하며, 보물 제87호인 강릉 신복사지삼층석탑과 비슷하다.



옛 낙산사 7층 석탑
(일제강점기)



현재 7층 석탑

6·25 전쟁 당시 총탄을 맞아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으나 1953년 4월 이형근 장군이 재건하였다.

●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洛山寺 乾漆觀世音菩薩坐像, 보물 제1362호)

원통보전에 봉안된 불상으로 조성연대는 15세기 전반의 양식이며, 200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영혈사에서 모셔왔다고 전해진다. 높이 112cm로, 종이로 조성한 지불(紙佛)로 겉면에 마른 옷칠을 한 불상에 개금하였다.

머리에는 높고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금속으로 만든 팔각 대좌(臺座) 위에 앉아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고 있다. 왼손은 무릎 위쪽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둥글고 원만한 얼굴과 부드러운 어깨선, 적절한 무릎 폭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안정감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으며 입가에는 열린 미소가 엿보인다.

치밀한 장식이 새겨진 높은 보관과 목걸이, 팔찌 등 각종 영락(瓔珞) 장식이 어깨와 다리는 물론, 대좌 위로 늘어진 상현좌(裳懸座)의 옷자락 위로도 표현되어 장식성이 부각되어 있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자세, 섬세한 손가락 표현 등은 고려 말의 전통을 이은 조선 초기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각 부분의 비례가 좋고 특히, 얼굴 표정도 빼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은 고대 이래의 형식에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관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건칠관음 보살상

●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洛山寺 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및 舍利 莊嚴具 一括, 보물 제1723호)

① 해수관음공중사리탑

석겸(釋謙) 스님은 이 구슬을 봉안하기 위해 숙종18년(1692) 공중사리탑을 세웠다. 8각 원당형을 기본으로 하는 부도탑이다. 전체 높이는 3.55m이고 각 부재는 흙을 맞추어 끼웠었으며, 탑신은 구형(球形)이며 옥개(屋蓋)는 8각인데 상륜부는 양련(仰蓮)과 복발(覆鉢), 보륜(寶輪), 보주(寶珠) 등을 하나로 조각하였다.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②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숙종18년 1692년)을 세우게 된 내력과 관음의 영험을 기록한 비문으로 일찍이 신라 의상과 원호가 친견했던 관음도량임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 숙종 9년(1683) 낙산사 흥련암 불상을 개금(改金)하여 새로 모실 때 상서로운 빛과 향기가 법당에 가득 차더니 공중에서 밝은 구슬 한 알이 탁자에 떨어졌다. 유리와 같이 깨끗하고 보배와 같이 밝게 빛나는 구슬이었다. 그 이전 광해군 11년(1619)에도 관음굴 중건을 마치고 상량하는 날 파랑새가 날아오르면서 울었다. 의상이 관음굴에서 동해 용왕으로부터 여의보주를 받은 것까지 하면 이러한 이적(異蹟)은 세 번째이다..

1693년(숙종 19년) 가선대부(嘉善大夫) 강원도방어사 겸 춘천도호부사 이현석(李玄錫)이 비문의 글을 짓고 1694년(숙종 20년)에 이 비를 세웠다.

③ 사리장엄구 일괄

2005년 4월 산불로 낙산사가 화마(火魔)를 입었을 때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이 기울어져서 2006년 4월 28일 사리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탑신 윗면 원형 사리공 안에서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장엄구 일괄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노란색 비단 보자기에 싸인 원형 청동합 안에 “강희(康熙) 31년”으로 적힌 연기(緣記)가 들어 있어 숙종 18년인 1692년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리장엄구는 청동합, 은합, 금합, 호박 사리병, 사리호 보자기, 금합 겹보자기, 금합 홀보자기



사리장엄구 일괄

기, 은합 겹보자기 등과 강희 31년경 조탑시주질, 대종질, 진언문의 문서들이 청동합 안에 봉안되어 있다.

2011년 11월 1일 사리장엄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723호로 지정되었다.

● 낙산사 범종(洛山寺 銅鐘 보물 제479호, 2005년 7월 7일 해제)

조선 예종 1년(1469)에 그의 아버지인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布施)한 높이 158cm, 입지름 98cm의 종이다. 종 꼭대기에는 사실적이고 기품 있어 보이는 용 2마리가 서로 등지고 있어 종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어깨 부분에는 연꽃잎으로 띠를 둘러고 몸통에는 가운데 굵은 3줄을 그어 상·하로 나누고, 위에는 보살상 4구를 새겼다. 보살상 사이 사이에는 가로로 범어로 글자를 4자씩 새기고, 보살상 머리 위로는 16자씩을 새겨 넣었다.

몸통 아래로는 만든 시기와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종의 밑 부분에는 너비 9.5cm의 가로줄이 있어, 그 안에 당시에 유행하던 물결무늬를 새겨 넣었다.

큰 종으로 조각 수법이 뚜렷하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보존상태가 좋아, 한국 종을 대표하는 걸작품이었다.

이종의 몸체에는 만든 배경과 과정이 적혀있는데 김수온이 짓고 명필 정난정이 썼다고 한다.

“세조가 왕비와 세자를 대동하여 순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낙산사에 들렀다가 사리분신(舍利分身)의 기적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에 낙산사를 중창하도록 하고 후에 예종이 된 세자의 자복사찰(資福寺刹)로 삼았다.

이종은 6.25 전쟁 직후 강릉 포교당으로 가져갔다가 낙산사 복원으로 회수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2005년 4월 5일 낙산사에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 동종이 소실, 용해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7월 7일 지정 해제되었다. 현재 훼손된 종 일부가 낙산사 의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낙산사 동종(소실 전)



홍예문(복원 후)



● 낙산사 홍예문(洛山寺 虹霓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

낙산사의 문루(門樓)인 홍예문은 조선 세조 12년(1466) 왕이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면서 건립하였다. 당시 강원도의 고을 수에 맞추어 26개의 홍예석을 써서 조성하였다고 하는데 사용된 돌은 강현면 정암리 길가에서 파석(破石)하여 가져다 쌓은 것이다. 기단부는 거칠게 다듬은 2단의 큼직한 자연석을 놓고, 그 위에 화강석으로 된 방형의 선단석(扇單石) 3개를 앞뒤 두 줄로 쌓아 둥근 문을 만들었다. 문의 좌우에는 큰 강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홍예문 위까지 성벽을 쌓아 사찰 경내를 구분하였다.

홍예문 위의 누각(樓閣)은 김유성(金有聲)의 낙산사도(洛山寺圖)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홍예문 위에는 1962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문루(門樓)가 세워져 있었으나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소실되어 2009년 10월 12일 복원하였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의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 낙산사 원장(洛山寺 垣牆,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

원장은 낙산사 법당인 원통보전의 돌레를 사각으로 에워싸고 있는 담장으로 조선 세조(재위 1455~1468)의 명으로 처음 조성되었다. 2005년 산불로 대부분 전각과 함께 일부 소실되어서 2007년 4월 5일 다시 복원하였다.

높이 3.7m, 길이 220m로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담장 안쪽 벽은 기와로, 바깥쪽은 막돌로 쌓았다. 법당을 향하고 있는 담장 안쪽에는 밑부분에 2단의 장대석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다시 1단의 장대석 받침돌을 놓았다. 담벽은 강회 진흙과 평기와(平瓦)를 차례로 쌓아 담벽 전면은 기와로 가로줄을 맞추고,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화강석을 배치하여 단조로운 벽면을 장식하였다. 담장 바깥면은 막돌로 벽면을 고르게 쌓았고 돌 사이에는 강회 진흙으로 메웠다. 담장 위에는 기와로 지붕을 이어 담벽을 보호하였다. 돌과 기와와 흙으로 높고 정연한 담장을 쌓고 넓은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한 이 담장은, 법당을 둘러 신성한 지역을 보호하면서 공간적 조형물로도 빼어나다.



낙산사 원장(垣牆)



낙산사 의상대

● 낙산사 의상대(洛山寺 義湘臺,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

의상대(義湘臺)는 흥련암의 관음굴로 가는 해안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신라의 고승 의상(義湘)이 낙산사를 창건할 때 좌선 수행처라고 전한다. 창건 이후 이곳에 암자를 지은 것이 천년전 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송강 정철(1536~1593)이 <관동별곡>에서 “洛嶽山山 東畔畔으로 義의相상臺대에 올라 안자, 日日出출을 보리라” 한 것과 용암체조(龍巖體照 1714~1779) 스님의 “등낙가의상대(登洛迦義湘臺)”를 보면 당시에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에 들어서는 김만옹(金晩翁) 주지스님이 1925년 정자를 짓고 의상대라 편액을 부쳤다. 편액은 동아일보 제호(題號)를 쓴 성당(攄堂 김돈희(金敦熙)가 황정건의 서체로 썼는데 친일(親日) 시비가 불거져 작가명과 낙관은 지워진 상태로 있다.

편액을 자세히 보면 “오를 의(義)”자가 아니고 “복희씨 희(羲)”자로 쓰여 있어 “희상대(羲湘臺)”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편액을 쓸 당시 “희(羲)”의 음이 “오를 의”자로도 불렀다고 하나 지금은 “희”자로만 불리고 있다. 그 뜻은 “물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조망하는 곳(집)”이다.

실제로 주변에 노송(老松)들이 자리하고 있어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떠오르는 일출 경관으로 유명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1936년 폭풍으로 무너져 중건하였으며, 1974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1975년에도 중건하였으나 현재의 모습은 1995년 8월에 육각정으로 복원이 되었다.

● **홍련암(紅蓮庵,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호)**

홍련암은 낙산사의 부속 암자로 의상대(義湘臺) 북쪽 300m 지점에 있는데 앞면과 옆면이 각 3칸씩으로 관음보살을 모신 겹처마 팔작 지붕이다.

의상(義湘) 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 “이 자리 위의 꼭대기에 대나무가 솟은 곳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여의보주를 받은 곳이다. 또한, 일설에는 의상이 이곳을 참배할 때 푸른 새를 만났는데 새가 석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이상히 여겨 굴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하였다. 7일 후 바다 위에 홍련(紅蓮)이 솟아 그 가운데 관음보살이 현신하였으므로 이 암자 이름을 홍련암이라 이름 짓고 파랑새가 사라진 굴을 관음굴(觀音窟)이라 불렀다고 한다.

바닷가 석굴 위에 자리 잡은 이 암자의 밑으로는 출렁이는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이 광경을 마루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일설에는 여의주(如意珠)를 바친 용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 이와



홍련암의 저녁 풍경



옛 홍련암 모습



같은 구조는 감은사지(感恩寺址)의 법당과 문무왕의 고사를 생각하게 한다.

신라 및 고려 시대 중창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인 1752년(영조 28) 덕린(德麟)이 중수하였고, 1797년(정조 21) 혜근(慧勤)이 중수하였으며, 1802년(순조 2) 청호(淸湖)·흥운(興雲)이 중수하였다. 1975년 원철(園哲)이 중창하여 옛 모습을 복원하였다. 2005년 화재 때 부처님의 가피로 화재를 면했으며 홍련암 부속 요사채만 소실되었던 것을 복원하였다.

홍련암은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로 지정되었다. 홍련암 입구에는 요사채인 연하당(蓮河堂)이 있는데 이곳은 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석간수(石間水)가 솟는데, 이 샘은 원호(元曉)가 양양의 영혈사(靈穴寺) 샘물을 석장(錫杖)에 담아 끌어왔다는 설화가 전한다.

● 대연석(大硯石), 청자연적(靑瓷硯滴)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28년 “건봉사급건봉 사말사사적”의 낙산사사적중 보물편에 “대연석 세조의 하사품(大硯石 世祖의 下賜品)”이라고



세조가 하사한 벼루(大硯石)



연적

적혀있다. 벼루는 직사각형인데 길이 50cm, 너비 30cm로 큰 편이며, 가운데는 타원형의 연지(硯池)가 파여 있다. 연적은 두꺼비 모양의 청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검은 빛을 띤다. 길이 10cm, 높이 6cm이다. 보물 두 점 모두 현존한다.

● 교지 2장(教旨 二張)

역시 1928년 앞서 말한 낙산사사적중 보물편에는 “교지 2장 조선 성종의 유품이니 일은 민역면제요, 일은 노비하사니라(教旨 二張 朝鮮 成宗의 遺品이니 一은 民役免除요, 一은 奴婢下賜니라)는 기록이 나온다. 성종 임금께서 낙산사 스님들의 요역(徭役)을 면제해주고, 절에 노비를 하사한다는 내용의 교지 두 장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수정염주와 여의보주(水晶念珠와 如意寶珠)

삼국유사를 보면 13세기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수난사가 실려있다. 몽고 병란이 있던 1253~1254년에 의상대사께서 받은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양주(양양)성으로 옮겼으나 성이 함락하려 할 때 주지인 선사(禪師) 아행(阿行)이 은합(銀盒)에 넣고 피난하려 하자 절에서 일하는 노비 걸승(乞升)이 보주를 빼앗아 땅에 묻으며 “병란에 살아나면 보물을 나라에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1254년 10월 22일 성이 함락되었고, 아행은 죽고 걸승은 살아남았다. 적군이 물러가자 보주를 파서 명주도(溟州道) 감

창사(監倉使)에게 바쳐서 잘 보관이 되었는데 1258년 11월 기림사 주지 각유(覺猷) 대선사가 임금에게 아뢰어 어부(御府 임금의 창고)로 옮겨 갔다.

1273년 고려사 권 27 세가(世家) 제27 원종 14년 조에 보면 1월에 원나라 사신 마강(馬絳)이 왔다가 3월에 돌아가면서 "낙산사 여의주를 가지고 갔다. "원나라 왕후가 오랫동안 "보고 싶다" 하여 고려 왕실에 요청하자 무능한 왕실이 보관한 지 15년 만에 원나라에 강탈을 당했다.

● 해수관음상(海水觀音像)

낙산사 성보(聖寶) 가운데 역사에 비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해수관음상으로 오봉(五峯) 중 경내에서 가장 높은 신선봉(神仙峯)에 위치하고 있어 멀리에서도 조망이 가능하여 원력을 발할 수 있다.

낙산사 해수관음상은 당시 주지 원철(圓徹)스님의 원력으로 양질의 화강암 산지로 손꼽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석재 700



해수관음보살상 (1977년 원철 스님의 원력으로 완공)

여 톤을 운반하여 1972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5년 만인 1977년 11월 6일 점안(點眼)하였다. 높이 16m, 둘레 3.3m, 최대 너비 6m로 대좌 앞부분에 두 마리의 용을 조각하고, 양 옆으로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관음상은 대좌 위에 활짝 핀 연꽃 위에 서 있는데 왼손에는 감로수(甘露水) 병을 받쳐 들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에서 수인(手印)을 짓고 있다. 해수관음상 둘레에 조성된 108 범륜석은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이후 불법이 더욱 번창하여 중생의 번뇌를 깨달음으로 성화(聖化)시킨다는 바램에서 조성한 것이다. 108개의 장판석과 48개의 바퀴살을 화강암으로 깔았으며 2008년 6월 20일 에 완성하였다. 관음상 앞에는 비익조가 조각된 석조 불전함이 위치 해 있다.

낙산사 내의 해수관음상은 관음지(觀音池)에도 조성(造像) 되어 있고, 흥련암 가는 길의 연하당(蓮河堂) 옆에서 관음수를 주시는 보살도 해수관음보살 이시다.



■■■ 가람 및 전각(殿閣)

낙산사의 전각은 2005년 화재 전까지 원통보전을 중심으로 보타전, 고향실, 무설전, 심검당, 해우당, 무이당, 보타락, 범종각, 조계문, 사천왕문, 흥예문, 일주문, 등의 당우가 있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불타서 없어져서 2005년에 발굴과 복원을 병행하여 2009년까지 3차에 걸친 복원을 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1928년 일제강점기 낙산사



2003년 소실 전 낙산사

● 원통보전(圓通寶殿)

사찰의 금당(金堂)으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만나 "산 정상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난 곳에 불전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여 모셨다고 한다. 그 장소가 지금의 원통보전이다.

몽골군이 내침하여 절을 불태우고 복장 유물까지 약탈을 당하자 무신정권의 권력자 최우(崔瑀)의 후원으로 복원한 것이 이규보의 낙산관음복장수보문병송에 실려 전한다. 6.25 전쟁으로 1950년 전체 당우(堂宇)가 불에 타서 큰 타격을 입었으나 1953년 4월에 이형근(李亨根, 1920년 11월 2일~2002년 1월 13일, 대한민국 군번 1번) 장군에 의해 복원되어 점안식을 거행했다. 휴전 협정이 시작되어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미 8군 대장 펜프리트, 합동군단장 클라크, 이형근 중장, 5사단장, 11사단장 등 군의 주요 지휘부가 대거 참석한 것을 보면 당시 낙산사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군단 부군단장 최홍희(국제태권도연맹 ITF 창립자) 장군이 원통보전 편액을 썼으나 유신체제를 반대해 캐나다 망명 후 북한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편액이 경봉(鏡峯) 스님의 글씨로 바꾸었다. 1군단 민심참모 전형인씨가 원통보전 주련을 썼으나 2005년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없다.

준공(竣工) 회향식(回向式) 때 영철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을 처음으로 모셨다고 하며, 후불탱은 2009년 석정스님에 의해 조성 봉안되었다. 2005년 양양산불로 전각은 전소되었으나 건칠관세음보살좌상은 당시 주지 금곡(金谷) 정념(正念)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화마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으며, 현 전각은 앞면 3칸, 측면 3칸에 팔작 지붕으로 2007년 11월에 복원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된 후 선조들을 선왕으로 추증했는데 그의 증조인 익조(翼祖 李行里)가 자식이 없어 흥련암에서 백일기도 후 얻은 자식이 도조(度祖 李善來)로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다. 이런 인연으로 낙산사는 태

조에서 성중에 이르기까지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왔으며 특히 세조는 중창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세조 때인지 아니면 예종의 자복사찰(資福寺刹)이 원인인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원통보전 옹마루에 얹었던 청기와(靑瓦) 2장이 유물로 전하는데 혹자는 원통보전이 본래 청기와 지붕이었는데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시 모두 가져가고 2장만 남긴 것이라고도 한다.



원통보전(우측은 경봉스님 현판과 청기와)

● 보타전(寶陀壁)

우리나라 대표적 관음 성지임을 상징하는 보타전과 보타락은 관세음보살이 산다는 인도의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에서 따온 이름의 건물이다. 건물은 당시 보산(寶山)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1991년 불사를 시작해 1993년 마근(麻斤) 주지 스님이 회향하였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이며 청기와의 팔작지붕이다. 외부 벽화에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스님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다. 법당에는 입상(立像)인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좌상(坐像)인 6관음(성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마두관음, 준제관음, 불공견색관음) 등 7관음을 봉안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고통과 고난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할 중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난다고 하는 『법화경』 『보문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 뒤에는 1,500분의 관음상을 봉안하였다. 천오백관음보살 한분 한분마다 천수천안(千手千眼)이시기에 32응신(應身)을 곱하면 5천만 겨레가 된다. 즉 5천만 우리 민족의 구원과 해탈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모든 관음상의 재질은 백두산에서 자란 홍송이다. 또한 그 동쪽 옆 벽면에는 벽면 모두를 차지하는 대형 목각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다.

전하는 말에는 칠 관음상을 봉안하던 날 밤하늘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청학 5마리가 날아올랐으며, 거칠던 동해바다는 조용해지고, 무지개 같은 상서로운 기운과 밝고 환한 빛이 온 하늘에 가득했다고 한다.

낙산사 보타전은 원통보전, 해수관음상과 더불어 낙산사가 관음신앙의 성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이다. 2005년 화재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불길에 닿지 않았다.



보타전



보타전 천수관음

● 사천왕문(四天王門)

사천왕문은 사찰의 중심 영역으로 진입할 때 지나게 되는 문이다. 이 문에는 사천왕상이나 그림 등을 모시며, 사찰에 들어설 때 악한 기운을 내쫓는다고 여겨진다.

원래 고대 인도의 신이었으나, 불교에 귀의한 후 수미산 중턱에서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지키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게 되었다.

낙산사 사천왕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며, 맞배지붕이다. 내부에는 양 측면에 사천왕이 모셔져 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은 음악을 관장하는 신으로 국토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비파를 연주하고 건달바를 거느린다.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수미산 중턱 남쪽에 있는 유리 지방을 관장하는 신으로 중생의 이익을 넓고 길게 만들어 만물을 소생시킨다. 지국천왕은 긴 검을 들고 있고 구반다를 거느린다.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은 눈과 입을 최대한 벌려 큰 소리와 웅변(雄辯)으로 악귀를 물리친다. 용과 여의주를 잡고 있고 용과 비사사를 거느리며 멀리 두루두루 볼 수 있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보탑과 창을 들고 있고 야차와 나찰을 거느린다. 사찰을 지키며 설법을 빠짐없이 듣는다.



사천왕문
(2005년 산불에도 피해를 면했다)



옛 사천왕문
(6.25 한국전쟁 시 폭격에서도 살아남았다)

이 사천왕상은 조선 말기에 김주성이 조성했으며, 1914년에 문을 고치면서 사천왕상을 개금하였다. 1988년에 문을 고치고, 2010년에 문을 다시 고치면서 사천왕상 개금도 다시 하였다. 이 건물은 6·25전쟁 및 2005년 산불에도 피해가 없었다. 2005년 산불이 사천왕문 앞에 있는 큰 벚나무 두 그루가 불을 막아 화마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며 불에 탄 벚나무는 밑둥이에서 새순이 돋고 있다.

● 기타 전각(殿閣)

❖ 일주문(一柱門)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방식으로 일심(一心)을 상징한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佛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있다. 건축양식은 다포계(多包系)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1990년 10월에 김학천(金鶴千)씨 시주로 도편수 홍완표가 완공하였다



낙산사 일주문



세심수각(洗心水閣)

❖ 세심수각(洗心水閣)

일주문을 지나면 옛 인월료(引月寮)가 나오고 거의 홍예문에 이를 때쯤이면 관세음보살 앞에 나서기 전에 마음을 씻도록 세심수각이 있다.

❖ 부도군(浮屠群)

일주문을 통과하면 길 좌측에 부도 6기와 임병준거사 공덕비, 1958년 시주에 대한 석물이 있다. 근세 부도 3기, 조선 후기 부도가 3기로 총 6기가 있다.

근세 부도 3기에는 한계자 보산선사(閑谿子 寶山禪師), 서봉당 원철 대선사(瑞峰堂 圓徹大禪師), 만옹당(晩翁堂)이 있으며, 조선 후기 부도 3기에는 정송당(靜松堂), 연하당(蓮河堂)과 오랜 세월로 당호가 육안(肉眼)으로 식별되지 않는 부도 1기가 있다.



부도군



❖ 화재자료전시장(火災資料展示場)

세심수각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6.25 때 소실된 낙산사를 재건한 재건공덕비와 2005년 화재를 복원한 후 화재를 연상케 하는 조형물 등이 있고 불탄 기와로 쌓아 올린 탑이 3기 있으며 정자도 있다.

❖ 선열당(禪悅堂)

본래 선열(禪悅)은 “선정에 들은 즐거움”이란 뜻이나, 이곳이 공양간(供養間)으로 사용함으로 “선정에 들은 즐거움을 맛보는 곳”이다. 낙산배 시조목 기념탑에서 우측으로 있다. 앞면 6칸, 옆면 5칸으로 1층은 공양간이고 2층은 요사채이다

❖ 취숙헌(聚宿軒)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건물로 세심원(洗心院) 저운저장고, 해우소까지 갖추고 있다. 앞면 15칸 옆면 3칸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선열당 바로 아래에 있다.

❖ 심검당(尋劍堂)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다. 검(劍)은 마지막 무명(無明)의 머리카락을 끊어서 부처의 혜명(慧明)을 증득(證得) 하게 하는 취모리검(吹毛利劍)을 상징한다. 사찰의 선실(禪室)로 앞면 11칸 옆면 3칸의 ㄱ자 형태의 팔작 지붕이다.

❖ 범종루(泛鐘樓)

사천왕문을 지나면 바로 왼쪽에 있으며 2005년 이후 새로 지었으며 복원된 낙산사 범종과 또 다른 종이 있다. 북, 목어, 운판도 걸려 있다. 특이한 점은 범종루의 한자가 불경 범(梵) 자가 아니라 물소리 범(泛)자를 썼는데 이는 낙산의 해조음(海潮音)을 상징한다고 한다.

❖ 백화수각(白華水閣)

원통보전을 바라보며 사천왕문 좌측에 대리석 수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아름다운 낙산사 경내를 장엄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백화수각은 백화도랑을 나타낸 것으로, 수각을 디자인할 때 백화의 전서체 형태를 사용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오는 사각(四角)의 수각 부분은 흰 백(白)자 모양으로 만들고 아랫단은 꽃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 흰 백자와 꽃 모양으로 백화도랑을 표현했다.



백화수각(白華水閣)

❖ 빈일루(賓日樓)

빈일루는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란 뜻이다. 건물이 처음 지어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1767년 박종(朴宗)이 쓴 기행문인「동경유록(東京遊錄)」에는 빈일료(賓日寮)라고 하며, 서쪽에 있던 송월료(送月寮)와 동서로 짝을 이뤄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숙종이 친히 쓴 어제시(御製詩)가 있었으며, 밖을 내다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해와 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928년 간행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에는 1888년(고종 25)에 선학 스님이 고쳐 지었고, 1912년에 해성 스님이 고쳐지으며 남긴 「낙산사빈일루중수기(洛山寺賓日樓重修記)」가 있다. 1928년에 빈일루 규모는 8칸이었다고 한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어 복원되지 않았었다.

6.25 이후 없어진 건물을 2005년 화재 이후 낙산사 전각을 복원하면서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토대로 발굴하여 2009년에 복원한 것이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로 2층 건물이며, 지붕 앞면은 팔작, 뒷면은 맞배지붕으로 설계하였다. 건물의 주초석은 양양 마을의 돌을 사용했고 누각의 기둥은 지난 2005년 화마를 견딘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손질해서 세웠다. 현판은 총무원장을 지낸 가산 지관(智冠) 스님이 썼다.



취숙헌



범종루



빈일루



응향각



설선당



근행당

❖ 응향각(凝香閣)

“부처님 무언의 설법이 있어 향기가 모이는 자리”라는 뜻이다. 빈일루를 지나서 담장과 조계문(曹溪門)이 있던 자리에 2005년 이후 새롭게 들어선 건물로 아치형의 아름다운 문을 가운데 두고 양쪽 날개로 방이 붙어 있는 형태로 정면 9칸 측면 1칸 맞배지붕이다.

❖ 설선당(說禪堂)

참선수행(參禪修行)을 위한 당우로 응향각을 들어서면 우측 세로로 지어진 건물이다. 본래 주지 스님이 계시던 고향실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 정취전(正趣殿)

극락, 또는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는 방법을 일러주는 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뚜렷한 하나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래서 무이행(無異行)이며, 정취(正趣)라 한역(漢譯)했던 것이다. 범일국사가 처음 세웠다.

현재 정취전이 있는 자리는 화재 이전 무설전 자리로 응향각을 들어서면 좌측에 있는 당우로 종무소로 사용한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 근행당(勤行堂)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의미를 가진 당우로 고향실과 송월료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앞면 9칸, 옆면 1칸으로 현판은 구당거사(丘堂居士)가 썼다.

❖ 송월료(送月寮)

“달을 보내는 요사(寮舍)”로 빈객(賓客)과 차담(茶談)을 하는 곳이다. 현판은 소헌 정도준(紹軒 鄭道準) 선생이 썼다. 앞면 3칸 옆면 3칸으로 맞배지붕이다.



송월료

❖ 고향실(古香室)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채로 앞면 6칸, 측면 3칸 7자의 팔작지붕이다.

❖ 대성문(大聖門)

관음대성(觀音大聖)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원통보전의 정문이다, 원장과 붙어 있어 이곳을 통과하면 바로 7층 석탑과 원통보전이 나온다.

❖ 원통문(圓通門)

원통보전을 나오면서 왼편으로 돌아가면 “꿈이 이루어 지는 길”이 나오는데 이문을 통과해야만 해수관음상 쪽으로 갈 수 있다.

❖ 해수관음상 부속 전각 등

해수관음상 조성 연혁(沿革)을 기록한 해수관음성상조성연기비(海水觀音聖像造成椽起碑)를 해수관음상 서편 조성하였으며 해수관음 종각은 대중의 서원을 발원하도록 하여 한 번씩만 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종각 옆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해수관음 기도접수처가 있다. 북동쪽에는 신선이 마셨다는 삼선수(三仙水)의 감로수각(甘露水閣)이 있으며 해수관음상 바로 앞에는 해수관음전이 위치하고 있다.

❖ 보타락(寶陀落)

보타전을 지나면 바로 아래에 보타락이 앞면 3칸 옆면 3칸의 팔작 지붕 누각이다. 이곳을 지나면 바로 앞에 관음지(觀音池)라는 연당(蓮塘)이 나온다. 보타전과 함께 조성하였으며 현판은 여초거사(如初居士)가 썼다.

❖ 관음지(觀音池)

보타락 앞에 있는 연못인 관음지(觀音池) 가운데의 넓직한 바위에는 포대화상이 포대 대신 바구니를 들고 앉아서 웃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던진 동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들이 바구니 속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연못 바닥에도 수많은 동전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2022. 5. 21일 관음지(觀音池)에 관세음보살 입상 조성 불사를 회향하며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 지장전(地藏殿)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명부세계(冥府世界)의 염라대왕을 모신 곳이라 하여 명부전(冥府殿), 지옥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열 명의 왕인 시왕(十王)을 모신 곳이라 하여 시왕전(十王殿)

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부터 49일까지 7일마다, 그리고 100일, 1년, 3년까지 총 열 번에 걸쳐 죄를 심판한다고 한다.

2012년에 신축하면서 6·25전쟁에 전사(한국군, 미군 및 연합군, 북한군, 중국군)한 영령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돌아가신 어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선망부모(先亡父母)의 재(齋)를 올리는 법당이다. 앞면 5칸, 옆면 2칸의 팔작 지붕으로 내부에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있고, 그 양쪽으로 시왕(十王)을 봉안하였다.



지장전

지장보살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에는 육환장(六環杖)을 들고 있다. 죽은 이들이 지장보살과 시왕의 인도에 따라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지장전 좌측에는 반룡수각(蟠龍水閣)이 있다.

❖ 의상기념관(義湘紀念館)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설립하였고, 200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에 완공하였다. 건물은 앞면 5칸, 옆면 5칸 규모이며 지붕은 네 면이 동일한 모임지붕이다. 의상대사 얼굴을 그린 진영과 그의 일대기를 재현한 불화 8폭, 의상대사가 저술한 「화엄일승법계도」와 「백화도량발원문」을 담은 병풍 10폭, 그를 연구한 각종 서적과 논문을 전시하였다. 그 외 세 차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물과 낙산사의 옛 사진, 2005년 화재로 불타버린 낙산사와 이를 복구하는 과정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또한 2005년 불에 타서 보물에서 지정 해제된 동종이 녹아내린 모습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 당시 화재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준다. 기념관 옆에는 의상조사수적비와 제6차 중창사적비가 웅장하게 서 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원통보전의 타다남은 대들보를 이용하여 강릉의 악기장인 임창호씨가 첼로와 바이올린을 만들어 반전(反轉)의 아름다움으로 희망을 전시하고 있다.

❖ 다래헌(茶來軒)

앞면 9칸 옆면 5칸 맞배지붕으로 의상기념관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낙산사를 관람 후 마음을 쉬는 곳으로 차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다래헌 옆에는 봉황감로수각(鳳凰甘露水閣)이 있으며 의상대로 가는 길에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오르면 계단 가운데에 관음송(觀音松) 두 그루가 있고 그 밑에는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질문인지 답변인지 모를 선문답(禪問答)이 있다. 득도(得道)의 길은 로중로무궁(路中路無窮 : 길 가운데서 보니 길은 다함이 없다) 이다.

❖ 무료(無料) 국수 공양실(供養室)

낙산사가 2005년 화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온정의 손길에 감사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천막을 치고 매일 11:30~13:00까지 국수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2010년 앞면 5칸, 옆면 2칸 맞배지붕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무료 공양을 계속하고 있다.



❖ 연하당(蓮河堂)

홍련암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연하당은 홍련암 부속 건물로 앞면 3칸, 옆면 3칸의 팔작 지붕의 2층 건물이다. 연하당 옆에는 종각, 관음수각(觀音水閣)이 있는데 관음수는 삼선수(三仙水)의 일부가 내려오는 것이라 한다. 홍련암 입구에는 해수 관음공중사리비와 중건공덕비 2기가 있고 그 옆에는 기도 접수처(앞면 3칸)가 있다.

❖ 의상연구소(義湘研究所)

후문 쪽으로 오면 산언덕에 바다를 바라보는 의상연구소가 있는데 앞면 4칸에 옆면 2칸의 요사로 팔작 지붕의 2층이다.



타나 남은 목재로 첼로와 바이올린 제작(의상기념관 전시)



길에서 길을 묻다

■■■ 낙산사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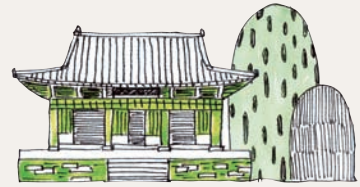
- 671년(신라 문무왕11) :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함.
- 786년(원성왕2) : 화재로 인하여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탐.
- 858년(헌안왕2) : 범일스님이 중창함. 이 때 세 칸의 불전과 정취보살상을 짓고 봉안함.
- 10세기 중엽 : 범일스님의 중창 이후 100여 년이 지났을 때 들불이 일어나 이 곳까지 번져오므로써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탐. 그러나 관음보살상과 정취보살상을 봉안한 불전은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함.
- 1197년(고려 명종27) : 유지량(庾資諒)이 관음굴에서 기도하다가 파랑새(靑鳥)의 영험을 경험함.
- 13세기 초 : 이규보(李奎報)가 관음보살상을 보수하고 복장 유물을 다시 봉안함.
- 1254년(고종41) : 몽고군의 침입으로 관음상과 정취보살상,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양주성(襄州城)으로 옮김. 양주성마저 함락되자 두 보주를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감창고(監倉庫)에 간직함.
- 1258년(고종45) : 감창고에 있던 두 보주를 어부(御府)로 옮겨 보관함.
- 1399년(조선 정종1) : 태조 이성계가 행차하여 능엄법회를 개최함.

- 1403년(태종3) : 태종이 선공소감(繕工少監) 김계란(金桂欄)을 보내어 재이(災異)를 없애기 위한 도량을 개최함.
- 1404년(태종4) : 왕실에서 내신을 보내어 기청법회(祈晴法會)를 개최함.
- 1466년(세조12) : 세조대왕이 행차함.
- 1467년(세조13) : 세조대왕이 행차하여 헌향하고 사찰 중건을 지시함.
- 1468년(세조14) : 학열(學悅)스님이 중창함. 현재 경내에 남아 있는 칠층석탑, 흥예문, 원통보전 담장 등은 이 무렵 조성된 것임.
- 1471년(성종2) : 선학(仙學)스님이 중수함. 이때 용선전, 영산전, 어제루, 승당 등을 보수하고 단청도 새로 입혔다고 함.
- 1489년(성종20) : 산불로 인하여 관음전이 불에 탐.
- 1592년(선조25) : 임진왜란으로 사찰 대부분의 당우가 불에 탐.
- 1619년(광해군11) : 관음굴을 중건함.
- 1631년(인조9) : 화재가 발행하여 사찰이 불에 탐. 종밀(宗密), 학조(學祖)스님 등 36인이 중창함.
- 1643년(인조21) : 도원(道源), 대주(大珠)스님 등 25인이 중수함.
- 1683년(숙종9) : 관음굴의 불상을 개금할 때 공중에서 한 개의 명주(明珠)가 내려 왔다고 함. 석겸(釋謙)스님이 이것을 봉안하기 위해 탑을 조성함.
- 1692년(숙종18) :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을 조성함.
- 1694년(숙종20) : 공중사리비(空中舍利碑)를 건립함.
- 1697년(숙종23) : 정수(精粹)스님이 인월암(印月庵)을 창건함.
- 1737년(영조13) : 석겸스님 등이 사적판(寺蹟板)을 새김.
- 1752년(영조28) : 덕린(德麟)스님이 흥련암을 중수함.
- 1777년(정조1) : 화재로 인하여 원통보전을 제외한 전 당우가 불에 탐.
- 1797년(정조21) : 해민(慧旻)스님이 흥련암을 중수함
- 1854년(철종5) : 경봉(鏡峰)·염진(念眞)·공념(肯念)등의 스님이 화주가 되어 원통보전과 용선전을 중수함. 어실각(御室閣)을 중수함. 화봉(華峰)스님이 「낙산사원통보전어실각수보기(洛山寺圓通寶殿御室閣修補記)」를 지음.
- 1866년(고종3) : 큰 비로 인하여 흥련암이 무너짐.
- 1869년(고종6) : 의연(義演)스님이 흥련암을 중건함.
- 1870년(고종7) : 최병복(崔秉復)이 「흥련암중건기」를 지음.
- 1888년(고종25) : 선학(仙鶴)스님이 빈일루(賓日樓)를 중건함.
- 1893년(고종30) : 선학, 인파(仁坡)등의 스님이 영산전을 중수함. 일봉(日峰)스님이 「오봉산낙산사영산전중수불사단호기」를 지음.
- 1895년(고종32) : 승당이 불에 타자 선학스님이 중건함.
- 1905년 : 경은(敬隱)스님이 선당, 후각(後閣)등의 일부 당우를 새로 지음.
- 1908년 : 관음굴이 무너짐.
- 1911년 : 흥운(興雲)·청호(淸湖) 두 스님이 관음굴을 중건함. 보름스님이 「낙산사관음굴상량문」과 「낙산사 관음굴중창기」를 지음.
- 1912년 : 일제의 31분말사법에 의해 건봉사의 말사가 됨.
- 해성(海星)스님이 빈일루를 중건함.



- 김동규(金東圭)가 「낙산사빈일루중수기(洛山寺賓日樓重修記)」를 지음.
- 1913년 : 백월(白月)스님이 「영세불망기」를 지음.
- 1918년 : 주지 응호(應湖)스님이 법전과 요사를 수리함.
- 1924년 : 주지 규현(奎鉉)스님이 도량 전체를 수리함.
- 1925년 : 만옹(晩翁)스님이 의상대에 정자를 새로 지음.
- 만해(萬海)스님이 「의상대기(義湘臺記)」를 지음.
- 1928년 : 만해스님이 건봉사(乾鳳寺)의 본말사 사적을 편찬하면서 낙산사의 사적도 함께 정리함.
- 1930년 : 화재가 발생하여 사찰 일부가 불에 탐.
- 1932년 : 주지 만옹스님이 중건함.
- 박한영스님이 「낙산사중건상량문」을 지음.
- 1937년 : 1936년의 폭풍우로 무너졌던 의상대 정자를 새로 지음.
- 1939년 : 박한영스님이 「낙산사의상대육각정중건기」를 지음.
- 1950년 : 한국전쟁 때 사찰 내 전체 당우가 불에 탐.
- 1953년 : 이형근 장군이 원통보전과 종각등을 새로지으면서 중창함. 7층석탑도 이 때 중수.
- 1959년 : 원통보전 내부의 신중탱화를 조성하여 봉안함.
- 1963년 : 홍예문 위의 누각을 새로 지음.
- 1968년 : 「낙산사등종」이 보물 제479호, 「낙산사칠층석탑」이 보물 제499호로 각각 지정됨.
- 1971년 : 「낙산사홍예문」·「낙산사담장」·「낙산사」등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34·35호로 각각 지정
1972년 : 원철(圓徹)스님이 중창을 시작함.
- 1974년 : 「의상대」가 강원도유형문화재 제 48호로 지정됨.
- 1975년 : 의상대를 중건함. 흥련암을 중창하면서 내부에 탕화와 제석천룡탱화를 함께 조성함.
- 1976년 : 홍예문을 중건함.
- 1977년 : 원철주지스님이 해수관음전을 짓고 동양최대해수관세음보살을 봉안함.
- 1982년 : 「양양낙산사사리탑」이 강원도유형문화재 제 75호로 지정됨.
- 1983년 : 진철주지스님께서 고향실,무של전,무이당을 해체 복원 중창함.
- 1984년 : 진철주지스님께서 양양 시내에 포교당 및 유치원을 개원함.
- 1984년 : 「낙산사흥련암」이 강원도문화재자료 제 36호로 지정됨.
- 1988년 : 해승주지스님이 범종각을 짓고 범종을 주조함.
- 1988년 06월 22일 : 전통사찰로 등록.
- 1991년 : 보산주지스님 일주문 건립.
- 1993년 : 오현, 지흥, 마근 스님의 원력으로 보타전, 보타루, 해우당을 건립하고 1500불 32응신 7관음상을 봉안함.
- 1995년 : 마근주지스님께서 의상대를 해체 복원함.
- 1996년 : 마근주지스님께서 심검당을 신축함.
- 1999년 : 지흥주지스님께서 창고를 철거하고 근행당을 건립.
- 1999년 : 지흥주지스님께서 흥련암을 해체 복원함.
- 2000년 : 지흥주지스님께서 의상기념관 다래헌을 건립.
- 2001년 : 지흥주지스님께서 의상교육관을 건립하고 원통보전 기와 번외와 단청을 함.

- 2003년 03월 : 설옹주지스님께서 낙산유스호텔을 인수 증,개축함.
- 2003년 02월 03일 : 원통보전에 봉안된 건칠 관세음보살좌상이 보물 제 1362호로 지정.
- 2005년 04월 05일 : 양양에 번지 거대한 산불이 오봉산까지 옮겨붙어 원통보전, 의상기념관, 고향실, 심검당, 흥예문 등 대부분 전각이 불타고 보물로 지정된 동종이 전소되어 보물이 해제됨.
- 2005년 : 낙산사 복지재단 설립
- 2006년 : 흥예문 복원
- 2007년 : 원통보전과 종각(범종과 동종)복원, 심검당, 취숙헌, 선열당, 흥연암, 연하당 중창, 노인요양원과 낙산유치원 개원
- 2009년 : 정취전, 설선당, 응향각, 빈일루, 송월로, 근행당 복원, 고향실 신축, 해수관음상 주변 정비, 무산 지역아동센터(의상도소관, 공부방) 개관, 양양포교당 무산사 신축
- 2022년 09월 04일 : 저녁 법남 55년, 세수 71세로 낙산사 주지 마근(馬根)스님 입적



영혈사



영혈사



■■■ 위치와 창건

양양군 양양읍 불당골길 346(화일리 산 323번지), 설악산 동남쪽 관모봉 아래에 자리한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의 말사이다.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설악산에 와서 처음 일출암(日出庵)을 짓고 주석하다가 2년 뒤인 689년(신문왕 9년)에 이 절을 창건하였으며 이어서 청련암(靑蓮庵)을 세웠다고 전한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686년에 입적하였으므로 '영혈사 사적기'에 기록된 창건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원효대사가 입적한 곳은 혈사(穴寺)라고 하는데 그 혈사가 바로 이 절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시간상 선, 후의 문제가 있다. 다만 영혈사의 끝 두 자가 '혈사(穴寺)'이고 이 절이 원효대사에 의해 창



영혈사 전경



건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전국의 사찰 중 '혈사'라는 명칭이 많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창건 이후 천년동안의 역사는 전하지 않으며, 1688년(숙종 14년)의 화재로 영혈사는 불타 버렸다. 1690년 취원(聚遠)스님은 절을 중건하고 법당 서쪽에 영천(靈泉)이 있음을 들어 절 이름을 영천사(靈泉寺)로 바꾸었으며 절의 동남쪽에 취원암(聚遠庵)을 창건하였다. 1716년(숙종 42년)에는 학천대사가 사찰의 북쪽 10여 리에 학소암(鶴巢庵)을 지었고 1764년(영조 40년)에는 묘각 스님이 절의 서쪽 기슭에 백학암(白鶴庵)을 창건하였다. 사적기(事蹟記)를 통하여 볼 때 영혈사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때가 이때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영혈사의 사세는 차츰 줄어들었다.

1826년(순조 26년)에는 학소암을 폐지하였으며 1853년(철종 4년)에는 백학암이 무너졌다. 그리고 1881년(고종 18년) 신도 김중옥이 산신각을 중수하였다는 기록만 전한다.

영천사에서 다시 영혈사의 이름을 회복해 부른 것은 1887년(고종 24년) 지하 스님과 도윤스님이 퇴락한 절을 일신 중수하고 난 다음부터이다. 그 뒤 1900년에는 신도 김우경이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1903년에는 보훈 스님이 칠성계(七星臺)를 창설하여 28인으로부터 모은 껌돈으로 밭 75두락을 매입하여 이 사찰의 향(香) 공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1904년에는 신도 김우경이 퇴락한 건물을 중수하였으며 1912년 대본산 건봉사의 말사가 되어 명맥을 이어오다가 6.25 전쟁을 맞았다. 다행히 치열한 설악산 전투 속에서도 이 절은 기적적으로 피해를 면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 이 절에 봉안되어 있던 관세음보살좌상은 전화(戰禍)를 입고 다시 건립한 낙산사 원통보전으로 옮겨 봉안되었다.

영혈사는 1887년의 중수 때 건립한 원통보전(圓通寶殿)과 선실 겸 요사로 사용하던 건물 2동뿐인 아담하고 자그마한 절로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1992년의 중건 불사를 통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영혈사와 함께하는 전설

● 영혈사(靈穴寺) 창건설화(創建說話)



영혈사 영혈수(靈穴水)

太初의 神祕 靈穴水

靈穴水(신비스러운영, 샘혈, 물수) 한모금으로

世世生生 갈증을 여의고

또 한 모금으로

三毒煩惱의 火을 끄라

이 靈穴水를 만난 당신은 곧

娑婆世界에서 불성을 만남이라

원호대사가 이곳에 와서 산세를 둘러보니 절터로는 안성맞춤이나 물이 없었다. 절 근처에 물이 날 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물이 나오지 아니하여 식수 때문에 폐사할 형편이었다. 대사는 간절하게 부처님께 “샘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절 근처 한곳을 일러주며 “이곳을 파보면 물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다. 이 샘은 그대의 정성에 부응하여 솟은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뿐 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거나 장마가 저도 이 샘의 물은 수량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샘 줄기가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깨어난 대사는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장소에 가서 파더니 맑은 물이 솟아났다. 그러나 그 샘은 일정한 양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많이 써도 마르지 않았다.

장마나 가뭄에도 수량에 변동이 없어 영천(靈泉)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절을 영혈사(靈穴寺)라 부르게 되었다. 산신각 서남쪽에 있었던 영천(靈泉)의 물줄기는 영험(靈驗)한 약수(藥水)인 감로수가 되어 극락보전 앞으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입구의 관음연못(觀音池) 또한 영천수가 흘러모여 이루어진 곳이다. 현 주지인 홍선(弘宣) 스님은 영천수를 영혈수(靈穴水)로 표기하여 감로수각(甘露水閣)을 세웠다.

● 영천과 낙산사



영혈사 관음 연못



자심탑

도를 함께 수행하던 의상대사가 동해안 낙산사 홍련암에 있을 때 원호대사는 설악산 영혈사에 있었다.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물이 없어 한참 고민에 빠져있을 때 원호대사가 나타나 지팡이로 현재의 낙산사 영천의 자리를 찌르니 영수(靈水)가 솟아 나왔다고 전해진다. 원호대사가 말하기를 ‘이 수맥은 설악산에 있는 영혈사의 수맥과 통하게 되어있기에 여기서 물을 많이 쓰면 물이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낙산사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자 영혈사의 물이 줄어들었다고 전해진다.

● 관음연못

사찰 입구에는 영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들어진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연못가에는 거북조형물이 조성되었는데 등에 지구본처럼 생긴 금강저를 지고 있다. 금강저는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용구의 하나로 제석천이 아수라와 싸울 때 코끼리를 타고 금강저를 무기로 삼아 아수라의 무리를 쳐부순다고 한 신화에서 그 신비한 힘이 유래되었다. ‘인도의 여러 신과 역사(力士)들이 이 무기로써 적을 항복시킨다.’고 한다. 사찰 입구에 금강저가 버티고 있으니 모든 악귀는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 자심탑(慈心塔) 이야기

자심(慈心)은 양양의 안심암(安心庵)에 있던 승려의 당호이다. 부모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직접 돌을 깎아 탑을 세우고 매일 그 아래에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그의 효성이 하늘에 닿아 어머니는 극락에 가게 되었다. 그 뒤에 이 탑을 자심탑(慈心塔)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죽은 부모님이 극락(極樂)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탑에서 기도하였다 한다.

이 탑은 일제 강점기부터 수난을 받아 해체되어 화일리 마을로, 춘천 경찰서로 옮겨 다니다가 2000년 영혈사로 4개의 옥개석이 옮겨왔고, 2005년 불사를 통해 현재의 5층 석탑으로 복원되어 많은 불제자와 방문객들에게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다.

■■■ 성보문화제

영혈사의 현존 건물로는 극락전 지장전 산신각 요사와 이전의 중심법당이었던 원통보전을 옮겨서 세운 절 입구 건물 1동이 있으며 특기할 만한 문화제는 원통전 아미타불도이다.

● 극락보전(極樂寶殿)

앞면 3칸, 옆면 2칸의 규모에 팔작지붕을 한 극락보전은 영혈사의 금당으로 근래에 새로 지었다. 본래 이 자리는 지금 절 아래쪽에 있는 원통전이 자리한 곳이다. 원통전에 계시던 관세음보살상은 지불(紙佛)로 낙산사 원통보전으로 이안(移安)되어 모시고 있다. 지금은 금동 아미타삼존불좌상이 본존불로 모셔져 있는데 좌우 협시(脅侍)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함께 봉안하였다.



영혈사 극락보전



아미타불과 아미타불도

대부분의 불상이 재료를 목불(木佛)에 개금(改金)하거나 금동 불상인 것과 달리 대세지보살상은 경주석(慶州石)으로 만들어진 석불(石佛)에 개금을 하였다. 후불탱(後佛幀)은 6.25 직후에 그려진 아미타불도(阿彌陀佛圖)이다. 좌우에는 1958년(북방불기 2985년으로 표기)에 조성된 신중탱과 1997년(불기 2541년)에 그려진 감로탱(甘露幀)이 있다. 아미타불도 옆에는 원효대사 진영이 모셔져 있다.

▶ 극락보전 주련

阿彌陀佛在何方(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착득심두절막망)
 念到念窮無念處(염도염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육문상방자금광)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가를,
 마음 머리에 붙들어 놓침 없이 생각하되,
 생각이 다한 끝,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섯 문에서 항상 자주빛 황금 광명을 놓으리.

● 원통전(圓通殿)

극락보전 아래쪽 범종각 옆에 있는 원통전은 영혈사의 중심법당이었으나 극락보전에 자리를 내어주고 원래의 자리에서 절의 서쪽 앞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현재 영혈사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앞면 3칸, 옆면 2칸에 홀처마 팔작지붕의 굴도리집으로 안에는 1821년에 조성된 아미타불도가 있다. 6.25 전쟁 당시 원통보전이 탄약고로 사용되면서 북한군이 건칠상(乾漆像)을 비롯한 각종 불구(佛具)를 계곡에 버렸는데 한 신도가 건칠관세음보살상(乾漆觀世音菩薩像)을 집으로 모셔 벽장에 감추었다가 전쟁 후 낙산사가 복원 불사를 하면서 낙산사로 옮겨 봉안하게 되었다. 현재는 새로운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였다.

▶ 원통전 주련(柱聯) : 낙산사 흥련암의 주련과 같다.

白衣觀音無說說(백의관음무설설)
 南巡童子不聞聞(남순동자불문문)
 瓶上綠楊三際夏(병상록양삼제하)
 巖前翠竹十方春(암전취죽십방춘)

백의관음은 말없이 설법 하시네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잘도 듣노라
 꽃병 위 녹색 버들은 언제나 여름인데
 바위 앞 초록의 대나무는 시방세계의 봄이로다.



지장전



지장전의 지장보살상



● 지장전(地藏殿)

극락보전 아래 왼쪽에 자리한 지장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근래에 새로 지은 건물이다. 안에는 1992년에 봉안한 금동지장보살좌상(金銅地藏菩薩坐像)이 있고 역시 최근에 그린 후불탱이 있다. 6·25 전쟁 때 설악산지구 전투에서 숨겨간 호국 영령인 특수임무수행자(特殊任務修行者) 위패(位牌)를 모셔두었다. 해마다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이면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호국 영령(護國英靈) 천도재(薦度齋)를 올리고 있다.

▶ 지장전 주련

地藏大聖威神力(지장대성위신력)
 恒河沙劫說難盡(항하사겁설난진)
 見聞瞻禮一念間(견문첨례일념간)
 利益人天無量事(이익인천무량사)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은
 수 만겁을 설명한들 끝이 없네.
 보고, 듣고, 예배하는 사이에
 인간과 세상에 이익된 일 끝이 없어라.

● 산신각 · 칠성각

우리나라 사찰에는 불교의 법당 뒤 높은 곳(산에 가까운 곳)에 보통 3가지 전각을 세우는데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이 그것이다. 영혈사에는 산신각과 칠성각이 있다. 칠성각에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무덤 속에 있는 장면과 원효대사가 해골을 들고 있는 내용의 벽화가 있다.

칠성각은 1990년대 말쯤 양양읍내에 거주하는 권태호의 시주로 건립하였으며, 산신각은 황일선씨의 시주로 건립되었다 한다.

▶ 산신각 주련

靈山昔日如來囑(영산석일여래촉)
 威振江山度衆生(위진강산도중생)
 萬里白雲青嶺裡(만리백운청장리)
 雲車鶴駕任閑情(운차학가임한정)

옛날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으로
 이 강산의 중생 제도하기 위엄 떨치셨네
 만리 뻗어 있는 흰 구름과 푸른 봉우리 뒤에서
 구름 수레 타고 한가로이 지내시네.

● 부도전

영혈사 주차장에서 200여 미터 직전 임도 옆 약간 높은 산모퉁이 위에 위치한다. 3기의 부도와 1기의 탑비가 있는데 부도는 석종형과 8각원당형으로 화강암이며 모두 조선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부도 ①은 자연암반(自然巖盤) 지대석(地臺石)은 본래 부재가 아니다. 하대석은 결실(缺失)로 중대석과 상대석이 일석이 며 원구형 탑신에는 당호가 있으나 식별이 되지 않는다. 거의 직각의 옥개석과 상륜의 보주를 크게 조성하여 비례가 맞지 않는다.

부도 ②는 자연 암반을 지대석으로 삼고 팔각 대좌 위에 원구형 탑신을 올렸다. 옥개석과 보주는 후보물(後補物)이다.

부도 ③의 지대석도 자연 암반으로 대좌는 망실(亡失)된 듯하다. 길쭉한 소형 탑신 위에 두툽게 조성한 복련(復蓮)은 입

이 들려 있다. 탑신과 일석인 보주는 탑신에 비해 크기가 작다.

이 3기의 부도는 지대석으로 삼은 암반이 본래의 것인지 불분명하여 본래 위치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부도비는 1760년에 조성된 것으로 영암당묘잠선사의 비(碑)다. 부도(浮屠)없이 부도비만 남아있다. 영조 재위 시 결혼한 이후 스님이 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부도비다.



영혈사 부도(우측부터 ①, ②, ③번 부도이다.)



영암당묘잠선사비

● 아미타불도(2019년 11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80호로 지정)

설법인을 하고 있는 중앙의 아미타불의 대좌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서 있는 전형적인 아미타불도로 원통전에 봉안되어있다. 아미타불의 광배 좌우에는 가섭과 아난 그리고 화면의 양 끝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하단 오른쪽 끝에는 붉은색 구획을 마련하고 그림의 제작 시기, 봉안처, 작가 등을 적은 화기(書記)가 있다. 화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光元年辛巳五月 日襄陽府靈穴寺 奉安于 緣化秩 證卯龍波慧 罽 口口道峯 富兼 金魚漢菴義銀 聖波盛演 比丘大益 比丘体信 比丘口仁 別座比丘口根 供養比丘 唵植 淨稱立禪陳 持殿緣化主南漢世能 三網 僧口比丘世沾 首僧比丘 煖口 畫僧比丘世煖 本寺秩 老口比丘洪鑑 比丘巨密 比丘大仁 比丘信 花 比丘最玄 比丘壁信 比丘贊熙 大施主秩 大施主靈發及 婆口主陳允恒



1821년 조성된 원통전 아미타불도



영혈사 호국범종각



화기에 '도광원년신사(道光元年辛巳)' 라는 간기가 있어 이 불화는 금어(金魚) 한암의은(漢菴義銀), 성파성연(聖波盛演), 비구대익(比丘大益), 비구체신(比丘体信) 등이 1821년 영혈사에서 조성하여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아미타불도는 원통보전에 모셔져 있었으나 지금은 낙산사로 옮겨 봉안된 건칠관음보살좌상의 후불탱으로 조성된 것이다. 2015년 3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66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1월 강원도의 유형문화재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19세기 아미타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

● 범종각(梵鐘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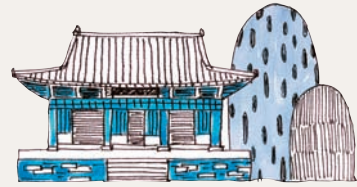
현판에 호국범종각(護國梵鐘閣)이라 새겨져 있다. 영혈사를 호국사찰이라 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범종에 새겨진 '호국대범종(護國大梵鐘) 佛紀 2548년(2004) 갑신년 조성'을 통해 제작 시기를 엿볼 수 있는데 당시 범종 제작을 위해 시주한 불자들의 명단이 범종 표면에 새겨져 있다. 종각 안에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과 함께 모셔져 있다.

● 요사채

요사채는 음식을 준비하고 스님들이 기거하거나 식사를 하시는 곳이다. 요사채 앞에는 해우소와 장독과 불사용(佛事用) 기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영혈사(甕穴寺) 현액(懸額)이 이 요사채에 걸려 있다.



영혈사 요사채



진전사



진 전 사



■■■ 위치와 창건

삼층석탑이 있는 아래 터 진전사지는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313(강현면 둔전리 100-2번지)에 있고, 금당과 요사채 일부가 복원된 위쪽 터 진전사는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368(둔전리 산 1-1번지)에 있다.

설악연화지(雪嶽蓮花地 : 설악산이 연꽃 모양으로 둘러싼 지형)에 자리하고 있는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8~9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도미는 신라 784년(선덕왕 5년)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장선사(地藏禪師)의 남종선선법(南宗禪法) : 금강경을 근거로 행



진전사 전경



동적이며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는 방식)을 이어받았는데 누구든 선(禪)만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선종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821년(헌덕왕 13년)에 귀국한다. 그러나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은 교종으로부터 '마귀의 소리'를 지껄인다고 배척받아 유랑길에 오른 도의는 신라의 북쪽 변방이던 설악산 화채봉 밑 둔전리 진전사(陳田寺)에 자리 잡아(기존에 있던 절에 의탁했거나 작은 절을 만들어 기거했을 거라는 설이 있음) 수도하며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열반(도의 : ?~825)에 든다.

그의 선법(禪法)은 제자 염거(廉居)에게 전해지고 염거는 그 법을 체징(體澄)에게 전하는데 체징은 장흥 보림사에서 신라 선문구산(禪門九山)의 효시가 된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이루고 도의를 개조(開祖)로 모신다. 후일 불교종단이 개편될 때 도의는 선교일치(禪教一致)를 표방하는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추앙받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진전사는 한국불교 선종(禪宗)의 모태이자 조계종(曹溪宗)의 종찰이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는 선종의 구도 방식은 글을 배우지 못한 불제자들 마음속에 복음처럼 파고들었고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자심즉불(自心卽佛)이라는 생각은 대중을 매료시켰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직지인심(直指人心), 문자를 넘어서 불립문자(不立文字),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 본래 지닌 인성을 살피 부처에 다다른 자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의 교리는 신라 말에 번성하여 고려의 건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진전사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고려의 일연(一然)이 계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일연은 광주 무량사에서 4년을 수도한 후 14세에 진전사에 와서 1219년(고종 6년)에 정식으로 출가하였고 22세에 승과에 합격하여 78세에 고려의 국사가 된 인물이다.

진전사의 교세(教勢)도 고려 시대에는 이런 추세를 타고 융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언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전사는 사라져버린다. 진전사지 발굴 시 1467년(조선 세조 13년)에 해당하는 중국연호가 적힌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진전사는 최소한 그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유추할 뿐이다.



아래 터 진전사지 전경

진전사지(陳田寺址) 발굴(發掘)

● 단국대박물관 발굴조사

1974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작업을 벌인 단국대 진전사지발굴조사단(단장 정영호박사)은 1979년 7월 30일 6년간 진행해온 한국 선종 발원지 진전사에 대한 해명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세 번(10세기, 12세기, 13세기), 조선시대에 한번 1467년(세조 13년) 총 네 차례 중창했던 건물자리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3층 석탑 및 초기 양식의 석조부도와 고대 문양사 연구와 와당 편년 고증자료가 되는 50여 종의 귀중한 기와 등 유물을 찾아냈다.

특히 이 발굴조사로 찾아낸 부도는 보물 439호로 지정되었고 부도가 자리 잡은 위쪽 터에 진전사의 금당지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3) 좌로부터 ① 1113년 (천경 3년 고려 예종 8년).1974년 출토 ② 1299년(대덕 3년 고려 충렬왕 25년). 1975년 출토 ③ 1467년 (성화 3년 조선 세조 13년). 1975년 출토

● 국강고고학연구소

시굴조사(5,360㎡)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발굴조사(3,400㎡)는 삼층석탑 주변으로 2017년 7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석축과 건물자리 세 곳, 기단(基壇)과 층단(層段) 그리고 배수로 등 잘 갖춰진 절터로 확인되었다.

진전사지삼층석탑 북쪽에 묻혀 있던 6세기 후반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金銅菩薩三尊佛立像)을 발견한 일을 최대의 발굴성과라 하겠다.



2017년 3층 석탑 주변 문화재 발굴현장 (출처:문화재청)



● 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2000년 조계종은 중단 차원에서 진전사를 선종 불교의 대도량으로서 복원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는 2001년~2002년에 걸쳐 부도탑이 위치한 지역일대에 대한 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여 탑자리 1개소와 건물자리 9개소, 축대시설 등을 발굴하였다.

9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지와 중심 건물인 법당지가 동서 16m, 남북 9.5m의 크기로 정면 3칸, 측면 2칸(법당 좌우측에는 1칸 규모의 익실(翼室)이 배치)이 확인되었다. 남쪽 축대 우측에서 누각자리가, 남쪽 계단자리 북편에서 중문자리가 각각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고려~조선시대의 다양한 암수 막새기와와 평기와를 비롯해 청자, 분청, 백자 등 다수가 출토되었다

■■■ 성보문화재

진전사는 2005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주도로 복원 불사를 시작하여 2009년 3월 3일 전통사찰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진전사지 3층 석탑



도의선사 탑비

● 진전사지(陳田寺址) 3층석탑(三層石塔) (1966. 02. 28 국보 122호로 지정)

양양군의 유일한 국보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 지붕돌 네 귀퉁이의 치켜올림이 경쾌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탑의 높이는 5.04m로 발굴 당시에는 훼손 방치된 상태였는데 1968년 4월 복원되었다.

8매의 장대석(長臺石)으로 구성된 지대(地臺) 위에 2단의 기단(基壇)이 있고 그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이 있는데 탑 1층

에는 네모난 사리공이 있다. 3층 옥개석(屋蓋石) 위에는 중앙에 둥그란 구멍이 있는데 탑 꼭대기에 기둥(찰주(擦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는데, 1층 몸돌에는 각기 다양한 모습의 불상 조각들이 있다. 밑면에는 5단씩의 받침을 두었다. 3층 지붕돌 꼭대기에는 받침돌만 남아 있을 뿐 머리 장식은 모두 없어졌다. 하층기단의 4면 양쪽에는 모퉁이 기둥을, 중앙에는 탕주(撐柱)를 새겼는데 각 면에 2좌씩의 천인좌상(天人坐像)을 양각하였다. 천인상은 연화좌 위에 앉아있고 2중의 원형 두광(頭光)을 쓴 모습이다. 상층기단도 4면인데 각 면은 2매의 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쪽에 모퉁이기둥을 새기고 중앙을 탕주(撐柱)로 양분하여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조각하였다. 탑신부 각 층은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 1석씩으로 되어 있다. 탑 1층 4면에는 여래상을 양각하였다.

● 진전사지 부도(浮屠)(1966. 2. 28 보물 439호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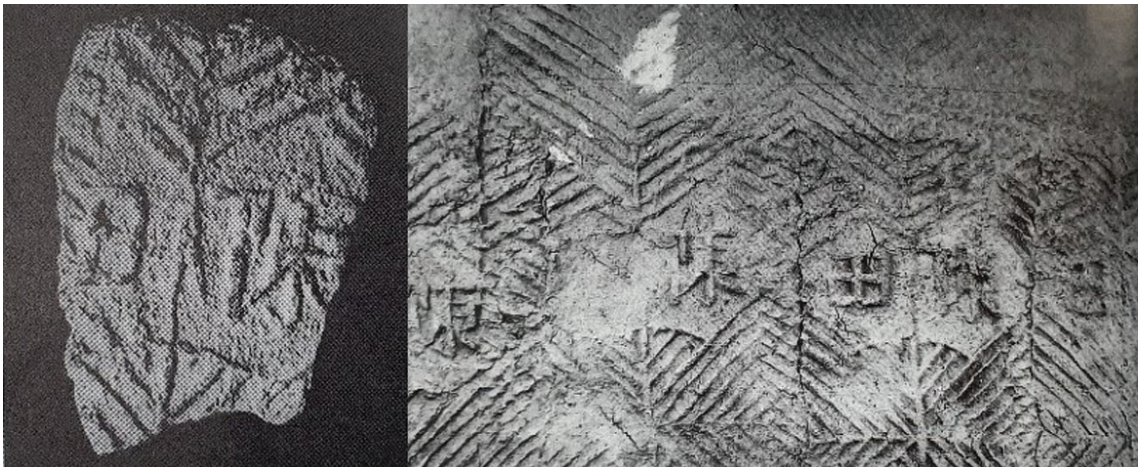
부도(浮屠)는 고승의 유골 및 사리를 보관하는 묘탑(墓塔)으로 승탑(僧塔)이라고도 부른다. 진전사지 부도는 높이 3.17미터로 부도와 석탑 양식이 혼재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6매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지대 위에 원호(圓弧)와 각형(角形) 1단씩의 꺾임 조각하여 기단부를 받친다. 사각형의 2층 기단 위에 연꽃 모양의 꺾임을 놓고 그 위에 팔각 탑신(塔身)과 옥개석(屋蓋石)을 쌓았다.

연꽃 모양의 꺾임인 연화대 윗면 중앙에 사각형의 사리공이 있는데 연화대에 사리공을 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부도라고 한다. 탑비(塔碑)가 존재하지 않아서 도의선사의 사리탑으로 추정하나 건립 시기는 9세기 중반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승탑이다.

● 진전사지(陳田寺址)(1982. 11. 3일 강원도 기념물 52호로 지정)

둔전리(屯田里)에 위치한 까닭에 '둔전사(屯田寺)로 불려오다 1965년 도의선사탑 근처에서 '진전(陳田)'이라는 기와가 발견되어 절 이름이 진전사(陳田寺)였음이 밝혀졌다. 그후 1975년 발굴 결과, 조선 세조 때까지의 연호가 찍힌 기와들이 나오므로써 최소한 이 무렵까지는 진전사가 유지되고 있다가 폐사(廢寺)된 것으로 추정한다.



1965.12월 최초로 발견된 진전 명(陳田 銘) 외편과, 1975년 출토 외편



● 금동보살삼존불입상(金銅菩薩三尊佛立像)

삼층석탑이 있는 절터를 발굴하는 조사가 2017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사찰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위치인 삼층석탑 북쪽에서 2017년 10월 금동보살삼존불입상(金銅菩薩三尊佛立像)이 발견되었다.

높이 8.7cm의 소형 입상으로 광배(光背) 상단과 좌대 일부가 없어졌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양호한 상태다. 육안으로는 청동으로 보이거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동으로 밝혀졌다.

본존불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보살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양식과는 달리 진전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은 본존불을 부처가 아닌 관음보살로 둔 독특한 양식이다. 관음보살이 머리에 쓴 보관(寶冠) 위에는 연꽃 좌대를 두고, 그 위에 다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인 아미타불을 표현했다. 광배는 전체적으로 불꽃무늬이고,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높이까지 올린 모습이다. 이 불상은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金銅辛卯銘三尊佛立像, 국보 제85호)'의 좌대와 옷 주름과 유사한데, 세 가닥으로 올라간 보관(寶冠)과 'X'자형의 옷주름 및 화불(化佛) 등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인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연대가 6세기까지 올라가는 금동삼존불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0점도 안 될 정도로 희귀한 유물"이라고 한다.

불상은 백제에서 만들었다는 설과 신라의 것이라는 설(說)로 갈리고 있다. 삼존불은 대지로 글을 새겨 넣는데 이 불상에는 기록이 없다.

본존불에서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이 모두 양각으로 표현됐다. 또한 본존불과 협시보살 사이의 하단에 인위적인 구멍 2개는 처음 발견되는 사례이다. 또 좌대에는 음각한 1단의 단판 8엽의 연꽃무늬가 보이며, 불상과 좌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금동보살삼존불입상 (2017년 10월 출토)

● 문화재 도굴

1989년 6월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진전사지 발굴보고"에 의하면 1910년대 말 일본인 2명이 삼층석탑의 1층 사리공 안에서 다량의 보물을 도굴하였고, 보물을 찾기 위해 도의선사 부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한다.

■■■ 진전사 복원 불사

진전사 복원 불사는 지난 2000년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가 진전사와 도의국사를 연구하며 30여 년 전에 매입했던 진전사지 토지 3필지(3,155평)를 조계종 3교구 본사인 신흥사에 기증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9월부터 1년에 걸쳐 진전사에 대한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이때 석탑, 대웅전, 승방, 유구(遺構) 등 1,500평 규모의 절터와 '진전(陳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와편(瓦片)이 발굴됐다.

2004년 4월 기공식 후 1년여 간의 공사 끝에 2005년 6월 금당과 요사채가 건립되었다.

● 적광보전(寂光寶殿)

적광보전(20.7평)은 발굴 당시 드러난 초석 위에 영주 부석사 등 고려시대 불교 건축물을 참고해 주심포(柱心包) 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어졌다. 또 현지에서 발굴된 기와의 모양과 문양을 재현해 기와를 올렸다.

2008년에는 비로자나불만 모셨다가 2020년 11월 18일 석조 비로자나삼존불을 모두 모셨다, 본존상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좌측에 문수보살(文殊菩薩)과 우측에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봉안되어 있다



진전사 금당인 적광보전

▶ 적광보전 주련(柱聯)

靑山疊疊彌陀窟(청산첩첩미타굴)
 滄海茫茫寂滅宮(창해망망적멸궁)
 物物拈來無罣碍(물물염래무괘애)
 幾看松亭鶴頭紅(기간송정학두홍)

푸른 산은 첩첩 아미타 굴이요
 넓은 바다는 망망 적멸궁이니
 모든 일 생각커니 걱정할 일 하나 없네.
 소나무 정자 위 붉은 학대가리를 몇 번이나 보았는고.

▶ 적광보전 측면과 후면에 심우도(尋牛圖)와 시편들

심우도는 선종(禪宗)에서, 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선화(禪畫)로 송나라 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전해 온다.

적광보전 양 측면과 후면의 벽에는 열 장의 심우도(尋牛圖)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무산(霧山) 조오현(曹五鉉) 스님이 쓴 심우도 연작시 열 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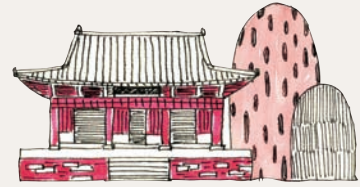
● 요사채 등

요사채는 스님들과 절을 찾는 빈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63평이다. 요사채 뒤에는 조리실 겸 공양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적광보전과 요사채 복원에 소요된 토지매입비와 발굴조사비, 건축비 등은 신흥사·백담사·낙산사 등이 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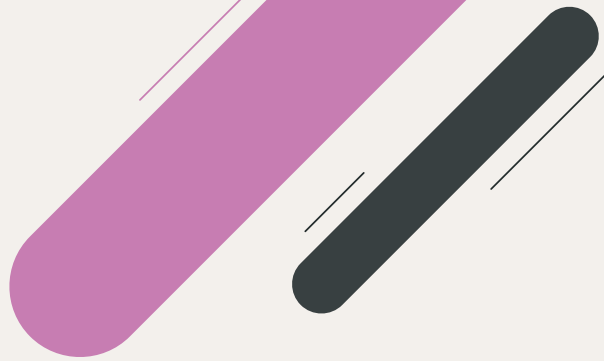
이 밖에도 감로수각(甘露水閣)과 해우소가 있다.

● 종각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2년 10월 현재 6개 기둥이 설 주춧돌이 놓여 있고 종각 건물도 공터에 조립되어 있다. 불사 중인 범종은 종량 1,080관으로 인간문화재 제 112호인 원광식이 제작할 예정이다.



성국사



성국사



■■■ 위치와 창건

성국사(城國寺)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25번지(약수길 132) 남설악(南雪嶽) 주전골(鑄錢谷) 등산로에 자리한 대한불교관음종(大韓佛敎觀音宗, 본사는 서울 낙산의 묘각사) 소속의 절이다.

성국사는 9세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절이었으나 절의 창건전말(創建顛末)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성주산파(聖住山派)의 개산조(開山祖)인 무염선사(無染禪師 800~888년)가 13세(跨一星終)에 설악산 오색석사로 출가하여 능가선(楞伽禪)의 대가인 법성선사(法性禪師)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선생이 지은 『고운집(孤雲集)』,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사지에 있는 국보 제8호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朗慧和尚白月菴



성국사(오색사) 인법당 전경



光塔碑)에 전(傳)한다.

사명(寺名)에 대하여는 최치원(崔致遠)의 『고운집(孤雲集)』에 설악산(雪嶽山) “오색석사(五色石寺)는 오색 돌이 있는 까닭에 이름한 것이다.(五石寺有五色石故名也)”라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설(說)이 있는데 “불교가 청·황·적·백·흑색의 오방색을 정색(正色)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 다섯 가지 색에서 절 이름이 유래 되었다.” 하며, 이 절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오색리라 하였으며, 절 아래에 있는 약수도 오색약수라 하였다.라고 전한다.

통일신라(統一新羅) 시대에는 법당 자리(址)와 초석들 그리고 오색리 3층 석탑(9세기 건립으로 추정)과 부재들로 보아서 법당을 크게 밝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高麗) 시대에도 자기 파편, 장대석과 건물의 부재들로 보아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조선(朝鮮) 시대와 일제(日帝) 강점기(強占期)까지 이름이 현곡사(玄谷寺)였는데 “그 옛날, 오색령(五色嶺)을 넘나들던 나그네의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다.”하고, 현대에 들어 성국사란 이름을 어느 교수가 지었다고 전한다.”(속초 향토사학자 박익훈 선생 낙수집에서) 또한 『현산지』에는 “오색천(五色川) 상류에 현곡사(玄谷寺)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사(廢寺)되었다. 이곳에 탑(塔)이 현존하여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추정된다.”는 기록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현곡사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한동안 폐사지(廢寺址)로 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2년 학루당 황운영 주지(鶴樓堂 黃雲永 住持) 스님이 사찰을 찾아와 불사에 진력하다가 1999년에 열반하였다.

오색석사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설악의 깊은 골짜기와 접근로, 현 절터의 규모(500평 정도)로 보아 중찰(中刹) 이하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참고로 사찰로 가는 길은 오색약수터 앞 약수교에서 주전골 등산로 방향으로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산길이라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이 지역은 수복지역(收復地域)으로 해방 후에도 한동안 우리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1960년대 말에 들어서야 오색석사지(五色石寺址)로 추정되어 졌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1968년 3층 석탑을 보물로 지정할 당시에는 사명(寺名)을 확정하지 못하고 “양양 오색리 3층 석탑”으로 명명하였으며, 현재의 사명인 성국사(城國寺)는 불충분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오색석사 계단 장대석

■■■ 무염선사(無染禪師)

속성은 김씨(金氏). 호는 무량(無量), 또는 무주(無住). 법명은 무염(無染). 범청(範淸)의 아들로 어머니는 화(華)씨이다. 제 29대 태종무열왕의 8대 손이다. 신라 선문구산(禪門九山) 중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산조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9세 때 ‘해동신동(海東神童)’으로 불렸다. 13세(跨一星終)에 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에서 법성(法性) 선사에게 출가하였다. 또한 무염은 부석사(浮石寺)의 석징(釋澄)을 찾아가 『화엄경』을 공부하였고, 821년(헌덕 13년)

당나라로 가서 대흥성의 (중)남산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이미 화엄학보다 선종(禪宗)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그도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 선법(禪法)을 배우고, 마곡산(麻谷山) 보철(寶徹)의 법맥(法脈)을 이어받았다. 20여 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므로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렸다.

845년(문성왕 7년) 귀국하여 공주 성주사(聖住寺)를 선문구산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본산으로 삼아 40여 년 동안 교화하였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를 구하므로 그들을 피하여 상주(尙州) 심묘사(深妙寺)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등 여섯 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여 법을 물었고, 제자는 2,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제자 중에는 원장(圓藏), 영원(靈源), 현영(玄影), 승량(僧亮), 여엄(麗嚴), 자인(慈忍) 등이 그의 선풍을 선양하여 성주산문의 기반을 세웠다.

1293년(충렬왕 19년) 천책(天頌)이 지은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는 그의 「무설토론(無舌土論)」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이 논에서, 부처의 교설을 뜻하는 불교(佛敎)와 선종 조사들의 도인 조도(祖道)를 구별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그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언어를 매개로 하거나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이심전심하는 것이 조도라고 정의하였고, 청정이나 부정 등의 상대적인 구별을 넘어선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을 빌려서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불교는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쓴 부처의 방편이라고 보았다.

888년 89세로 입적하였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대낭혜(大朗慧), 탑호는 백월보광(白月葆光)이다. 탑은 성주산 성주사에 세웠으며, 최치원(崔致遠)이 왕명을 받아 글을 짓고 최인연(崔仁澆)이 쓴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1962년 국보(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다.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출처:보령시)

■■■ 폐사와 관련한 전설 주전골(鑄錢谷)

이 골의 원래 이름은 “물을 많이 뿜는다”는 뜻으로 ‘큰 고래 골’이었으나 전설로 인하여 골짜기 전체를 주전골(鑄錢谷)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옛날 양양부(襄陽府)에서 서방 70리(현재는 실측 결과 약 20km) 오색령 남쪽에 현곡사(玄谷寺)가 있었는데 도적들이 사찰을 빼앗고 오색령(五色嶺)을 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강원도 관찰사가 동해안 여러 고을을 순시(巡視)하기 위하여 오색령을 넘다가 현곡사(玄谷寺)를 지날 무렵에 물



소리, 바람 소리에 섞여 아련히 쇠붙이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어 수행원에게 주변을 살펴보라 명(命)했다.

수행원들은 쇠소리를 따라 험한 계곡을 오르고 계류를 건너 바위굴에 도착하니 스님 옷을 입은 10여 명이 부처님께 공양하던 낫그릇을 깨뜨리고 녹여서 위조(僞造) 엽전(葉錢)을 만들고 있었다. 급히, 체포하여 양양도호부에 이첩하고 처리토록 하니, 양양 부사가 이 바위굴을 없애고, 절도 폐사시키고 그들을 엄벌하였다 한다.

그 후로 이 골짜기는 위조 엽전을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쇠를 부어 만들 주(鑄) ‘돈 전(錢) 자를 써서 주전골(鑄錢谷)이라 부르게 되었고 절이 폐사되는 비운(悲運)을 맞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주전골에는 동전을 쌓아 놓은 것 같은 주전바위(일명 시루바위)와, 독좌암(獨坐巖), 선녀탕(仙女湯), 금강문(金剛門) 등이 있어 오래전부터 불교와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전골 가을 단풍

■ ■ ■ 성보문화재

현존하는 유물로는 통일신라 시대의 양양오색리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석사자(石獅子)와 장대석(長臺石), 기단석, 탑재(塔材) 등이 산재(散在)되어 있고,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등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진 평 기와 등이 수습된 바 있다.

고려 시대에도 석탑의 부재와 난간석, 석수, 막새기와 평기와, 도자기 파편으로 미루어 번성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장대석과 건물의 부재들로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오랫동안 폐사지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언제, 어떤 일로 폐사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에 불사한 인법당(因法堂) 1동이 있다.

삼존불 옆에는 삼층 석탑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작은 탑이 있는데 이 탑은 고려 시대의 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바는 없다.

절에 오르는 계단석이 장대석(240cm)으로 만들어져 당시의 건축 규모를 짐작케 할 뿐이다. 또한 2017년 설악산 집중



성국사 3층 석탑

호우시 수해 복구를 하다가 절 맞은편 위 측에서도 곡식을 뺏는 돌확이 발견되어 수습하였다고 한다.

● 양양오색리3층석탑(襄陽 五色里 三層石塔)(보물 제497호)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으로 1968.12.19.일 보물(寶物) 제479호로 지정되었으며 높이는 약 5m이고 화강암(花崗巖)으로 만들어졌다. 복원 전에는 3층(三層) 석탑(石塔)과 또 다른 부재(部材)들이 흩어져 완전히 쓰러져 있던 것을 1971년에 복원한 탑이다.

5매(五枚)의 길고 큰 돌로 짜여진 바닥 돌 위에 2층 기단이 마련되고 그 위에 3층 탑신부가 놓여 있다. 밑 기단은 높직한 햇돌과 벽면이 한돌로 이루어졌으며 각 면에는 네 귀의 귀기둥과 가운데의 사잇기둥 하나가 새겨져 있다.

덧개돌(甲石)은 3장의 판돌(板石)로 덮여있는데 윗면에는 경사를 이루며, 네 귀통이에 맞닿은 선이 뚜렷하며 가운데에는 높직한 굴림 턱과 낮게 턱을 돌우고 그 위로 윗 기단을 바치고 있다. 윗 기단 벽면은 4장의 판 돌로 짜여있으며, 각 면에는 네 귀에 귀기둥을 새기고 가운데에는 사잇기둥이 하나씩 있다. 덧개돌은 2장의 판 돌로 이루어졌는데 밑면에는 깊숙이 물 굽기 홈이 얇게 파여있고, 네 귀에도 물 굽기 홈이 표시되어 있다. 또 밑면에는 밑받침 턱이 돌아 있고 윗면은 약간의 경사가 저서 네 귀의 맞닿은 선이 뚜렷하며 가운데에는 굴리고 괴임 턱을 돌우어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는 몸돌(屋身)과 지붕돌(屋蓋石)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다. 각 층의 몸돌에는 귀기둥이 있고 지붕의 처마 밑에는 4단씩 층단 받침이 있다. 처마 끝은 위 아랫단이 수평을 이루면서 추녀 끝에는 귀 솟음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며 이곳에 풍경(風磬)을 매달았던 구멍이 있다. 지붕 꼭대기를 장식하는 상륜부(相輪部)는 지금 모두 없어졌으며 3층 지붕돌 윗면에는 지름 7cm, 깊이 4.5cm의 둥근 찰주(擦柱) 구멍이 있을 뿐이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돌 다듬은 모양새가 우수하며 전체적인 균형과 조형감도 단정하고 우아한 편이다. 또한 기단부(基壇部)와 탑신부(塔身部)의 형태, 지붕돌이 얇은 점, 층단 받침이 4단인 점 등에서 통일신라 말기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인법당(因法堂)

인법당(因法堂)은 큰 법당이 없는 절에서 승려가 머무르는 곳에 불상(佛像)을 함께 봉안(奉安)한 전각(殿閣), 혹은 승방(僧房)으로 학루당 황운영 주지 스님의 뜻으로 1990년대 초부터 신축하기 시작하여 현 주지이신 지명(智明) 스님께서 2010년에 준공하였다. 앞으로도 단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앞면 8칸 옆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내부에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중심으로 남순동자(南詢童子)와 해상용왕(海上龍王)이 각각 보처(補處)로 삼존상(三尊像)이 봉안되어 있으며 후불탱화(後佛幀畫)도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이 협시(協侍)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봉안되어 있다.



인법당내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남순동자와 해상용왕



● **아미타 삼존불(阿彌陀 三尊佛)**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탑



인법당 우측 산밑의 아미타 삼존불

성국사에는 특이하게도 인법당 우측 산밑에 시멘트 단(壇)이 있는데 단(壇)위에는 당우(堂宇) 없이 삼존불이 경내(境內)에 봉안되어 있다.

이 터는 원래 금당지(金堂址)였다고 하는데 아미타(阿彌陀) 부처님을 본 좌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좌우에 협시(脇侍)보살로 모셔져 있다. 삼존불은 인법당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터를 지켰으며 삼존불을 인연으로 인법당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오색석사복원기념(五色石寺復元記念) 학루당황운영공덕비(鶴樓堂黃雲永功德碑)**

3층 석탑 남쪽에는 오색석사의 역사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1972년 이 절에 임(任)하시어 1974년부터 터를 닦고 길을 내는 등 복원(復元)을 서두르다가 금당 건립의 뜻만 세우고 1999년에 열반(涅槃)한 학루당 황운영 주지 스님의 공덕비(功德碑)가 세워져 있다. 당시 폐허가 된 이 절을 복원하기 위하여 스님께서는 서울 평창동에 있는 각진(覺眞) 선원(장영자 개인 사찰을 '94년 조계종 총무원이 인수 후 비구니 도량으로 활용)의 주지를 겸직하면서 주지 월급으로 조금씩 복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스님 당시는 조계종(曹溪宗) 소속 사찰이었으나 1998년 송월주 스님의 총무원장 삼선 출마를 두고 조계종 갈등과 폭력에 환멸을 느껴서 조계종을 탈퇴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지명(智明) 스님이 절을 운영하면서 대한불교관음종(大韓佛敎觀音宗) 종단의 사찰이 되었다.

● **6·25 한국전쟁 이후 사찰의 변화**

이 절터 연유는 알 수 없으나 6.25 한국전쟁 후 정연옥 할머니(보살계를 받지 않음, 양양 남문리 355-1번지 거주)의 개인 암자(사유재산)였던 것을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립되면서 문화재청의 재산이 되었다고 한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단 설립 당시 관보로 사유재산 신고 기간을 주었다고 하는데 관보를 접하지 못한 사찰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국유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 지역이 수복지역이었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문화재청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학루당 스님은 정연옥(鄭然玉) 할머니와 생면부지(生面不知)였으나 만행(卍行)을 하다 잠시 들린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사찰을 복원 정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께서 열반 후 학루당 스님의 누이 아들인 지명(智明) 스님께서 대한불교관음종(大韓佛敎觀音宗)으로 개종 후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스님은 학루당의 유지를 받아 스님 본분에 충실하고 검소하게 사찰을 관리하고 있다.



학루당스님 공덕비



명주사



명주사



■■■ 창건(創建) 및 연혁

명주사(明珠寺)는 현북면 어성전길 93-229(어성전리 488번지) 만월산(滿月山)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서 역대 명망이 높던 선사(禪師)와 강백(講伯)들이 후학들을 길러던 수행승의 요람이다.

고려(高麗) 제7대 목종(穆宗) 12년(1009)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스님이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서 명주사(明珠寺)라 하였다.

혜명대사에 대하여는 관촉사(灌燭寺) 은진미륵(恩津彌勒)과 관련한 전설과 역사가 있어 아래에서 전하기로 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본 명주사 가을 풍경



대주 대사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어 따로 기록할 것이 없다.

『건봉사말사사적』 기록에 의하면 창건 당시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 보통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결과부좌(結跏趺坐)한 자세로 앉아 있음을 조성 봉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화엄종 계통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경전상으로 볼 때 비로자나불은 『화엄경(華嚴經)』의 교주) 여러 차례 소실로 남아있지 않다. 비로자나불을 모셨다면 당시 사찰 규모로 보면 대적광전(大寂光殿)이 금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1123년(인종(仁宗) 원년) 부속 암자인 청연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여 이 고장에 불교가 크게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운문암은 법수치리(法水峙里)로 가는 길 강가 바위에 “운문암(雲門岩)”이란 음각된 글씨만 전하는데 이형익(李衡翼)이 대각(大刻)했다고 한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은 반승반속(半僧半俗)의 삶으로도 유명한데 1486년(성종 17년) 52세 나이로 법수치리 부근 검달동(黔達洞)에서 살 때 명주사의 암자 이름도 지었다고 하며 후자는 명주사에서 수행했다고 한다.

명주사는 현재 설악산 신흥사의 말사로 규모가 아담하지만, 한때는 강원도에서 건봉사와 비교하여도 작지 않은 큰 거찰이었다고 전해진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인 까닭에 옛날에는 많은 고승과 시인 묵객이 명주사를 거쳐 갔다고 한다. 또한 예로부터 선원(禪院)으로 이름나 많은 학승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676년(숙종 2년) 수영(秀瑩)이 향로암(香爐庵)을 창건하였다. 1701년(숙종 27년)에는 법당 맞은편에 벽옥루(碧玉樓)를 지었다.

1781년(정조 5년)에는 연파(蓮坡) 스님이 원통암(圓通庵)을 창건하고 관음상(觀音像)을 조성 봉안하였다. 원통암을 창건한 연파 스님의 법명은 영주(永住:1730~1817)로 양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돌을 세워 부처라 하고 모래로 탑을 만들어 예배하는 놀이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12세에 부모를 잃고 명주사로 출가한 뒤 불경을 배우다가, 당대의 고승인 호월(皓月)·풍악(楓岳)·송암(松巖)·설파(雪坡) 스님을 찾아다니며 불경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 뒤 명주사로 돌아와 원통암을 짓고 강석(講席)을 열었는데, 항상 100여명의 학도들이 모였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나라에서 내렸던 승려에 대한 직책 중 최고의 승직(僧職)인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表忠祠禪敎兩宗都摠攝) 및 석왕사도원장(釋王寺都院長)을 역임하다가 세수 87세, 법랍 73세로 입적하였다. 다비(茶毘)하여 사리를 얻게 되자 비를 세웠는데, 현재 명주사에 남아있다. 명주사에 학승들의 요람처가 된 데는 이 스님의 공이 지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49년(헌종 15년)과 1853년(철종 4년) 원통암이 화재로 소실되자 곧바로 중건하였으며, 1860(철종 11년) 큰 화재가 만월산 전체를 뒤덮어 명주사 본사와 원통암·청연암·운문암·향로암이 소실되자 월허(月虛) 스님이 사재를 기울여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이듬해인 1861년(철종 12년) 월허(月虛)와 인허(印虛)가 운문암을 중건하여 만일선회(萬日禪會)를 개설하고 향로암을 서쪽에 옮겨 중건하고 보련암(寶蓮庵)이라 개명하였다.

1864년(고종 원년)에는 학운정원(鶴雲正原) 스님이 사재를 털어서 원통암을 중건하였으며, 1878년(고종 15년)에 또다시 화재를 입어 이듬해인 1879년(고종 16년)에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1887년(고종 24년) 일봉(日奉)스님이 용선전(龍船殿)을 지으면서 가람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광무(光武) 원년인 1897년(고종 34년) 명주사가 화재로 다시 한번 모두 소실



옛 명주사 (1928년)

되자 부속 암자였던 원통암에서 여러 가지 사무(寺務)를 행하게 되자 이때의 명주사를 원통암으로 칭하면서 지금의 명주사는 본래의 원통암 자리가 된 것이다. 1899년(고종 36년)에는 향로전, 1906년(고종 43년)에는 원통전을 중건 새롭게 사찰을 확장하였다.

1912년 31본말사법 인가로 건봉사 말사가 되었고, 그해 1월 홍포룡(洪蒲龍)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다가 1913년 3월 김월인(金月印) 스님이 취임하였고, 1915년에 침고(砧庫)를 건립하였다.

1917년 8월에 김백월(金白月) 스님이 취임하여 다음 해엔 사찰을 중수하였다. 1920년 8월에 노제봉(盧霽峯) 주지에 이어 1923년 7월에 윤설호(尹雪昊)가 주지로 취임, 1925년에 사찰을 수리하였다. 1926년 7월에 묵옹(默翁) 스님이 취임하여 요사채의 지붕을 기와로 바꾸었다.

이 당시 명주사는 총 15동 95칸의 건물이 있었다. 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末寺史蹟)에 따르면 법당인 원통암 30칸을 비롯하여 독성각 1칸, 산신각 1칸, 어향각(御鄉閣) 9칸, 응향각(凝香閣) 6칸, 진영각(眞影閣) 6칸, 현위실(弦葦室) 6칸, 만수실(曼殊室) 6칸, 미타암(彌陀庵) 6칸, 삼포방(三浦房) 6칸, 창고 6칸, 욕실 3칸, 족침실(足砧室) 2칸, 수침실(水砧室) 4칸, 해우소 3칸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9칸의 어향각(御鄉閣) 임금이나 왕비의 조상과 관련(은 명주사가 왕실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연파당 스님 등)이며, 법당 좌우의 선방과 강원을 현위실(弦葦室), 만수실(曼殊室)로 명명한 것도 주목된다.

그리고 진영각 안에는 환성당(喚聲堂)을 비롯한 이 절과 관련된 17분의 고승 영정이 일제 강점기까지 봉안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모두 전하지 않는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명주사는 폐허가 되어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1963년 주지 수룡(壽龍) 스님이 중건하였으며, 1979년 주지 마근(麻根) 스님이 법당과 삼성각, 추성각(秋聲閣 : 주지 스님 거주), 종각, 요사채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주사 전경

■■■ 명주사 관련 고승 및 설화

● 창건주 혜명대사(惠明大師) 관련 설화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위치한 관촉사(觀燭寺)는 사찰 이름보다 유명한 미륵부처님(石造彌勒菩薩立像, 보물 제218호)이 있다.

고려가 건국 후 968년 봄, 관촉사에서 30여 리 떨어진 사제촌(沙梯村)의 한 여인이 반야산(관촉사가 위치한 산)에 올라



산나물을 뜯는데 어디선가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울음소리를 찾아가 보니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큰 돌 하나가 땅속에서 솟아오르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깜짝 놀라 황급히 내려와 사위에게 말했고 사위는 곧바로 관아에 알렸다. 기이하게 생각한 고을 원님은 광종(光宗)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은 곧바로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열자,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라에 상서(祥瑞)로운 일이 생길 징조라며 그곳에 미륵부처님을 조성하라고 간언했다. 광종 임금은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혜명대사께 이 불사를 성취하도록 했다.

혜명대사는 수백 명의 석공을 이끌고 반야산(般若山)으로 향했다. 산 중턱에 도착하니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바위가 위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혜명대사는 석공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저 거대한 돌덩어리는 고려를 구하기 위해 현세에 오신 미륵부처님이다. 여러분이 망치질을 하면 그 형태가 나타날 것이니 조심해서 미륵부처님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석공들은 바위에 매달려 망치질을 하기 시작하여 수십 년이 지나자 모습을 드러낸 미륵부처님은 머리에는 넓은 사각형 보관을 쓰고 서서 자애롭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은 미륵불이 조성되자 거대한 미륵부처님을 세울 공리를 해도 뚜렷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혜명이 산책하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자그마한 돌부처님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통나무를 깔고 원목을 굴리며 돌부처님을 옮겼다. 그다음은 흙을 잔뜩 쌓은 다음 돌부처님을 옮겨 놓고 차츰 흙을 파내면서 세우고 있었다. 무릎을 탁 친 혜명대사는 곧바로 인부들을 시켜 단 며칠 만에 거대한 미륵부처님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 후 마을에 가서 다시 아이를 찾으니 그런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삼등(三等) 불상을 무난히 세워 미륵부처님을 완성하였으니 때는 1006년(목종 9년)으로 불사를 시작한 지 무려 37년 만의 일이었다. 불상은 높이 18.12m, 둘레 11m, 귀의 길이만도 3.33m나 됐다.

미륵부처님에게 황금 옷을 입히고 자줏빛 장식을 했다. 미간의 백호(白毫) 수정에서 찬란한 빛이 발해 중국에까지 퍼졌다. 당시 송나라에는 지안(智眼)이라는 고승이 있었는데 그 빛을 따라 고려 땅 반야산에까지 찾아와 미륵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뒤 모인 대중에게 말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이 마치 촛불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도량을 건립해 관촉사(觀燭寺)라고 이름 지으시오.” 나라에서는 곧바로 대대적인 불사를 해서 관촉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그 후 북쪽에서 오랑캐가 파죽지세로 내려와 압록강에 이르렀다. 그때 가사를 입고 샅갓을 쓴 한 스님이 나타나 태연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길을 찾던 오랑캐들은 혜명 스님을 따라가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모두 빠져 죽고 말았다. 부하를 잃은 오랑캐 장수는 화가 나 강을 건너온 스님을 칼로 내리쳤다. 칼은 스님의 샷갓 한쪽 끝을 스쳤을 뿐 다치지 않으며 장수의 칼을 조롱했다.

그때 관촉사 미륵부처님은 땀을 흘리며 보관(寶冠) 한쪽이 떨어져 내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미륵부처님이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 압록강에 몸을 드러낸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건이 지난 얼마 후 다시 떨어진 부분이 저절로 붙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미륵부처님의 보관 한쪽은 떨어졌다가 붙은 자국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야간 조명등을 설치한 뒤 좌측 귀 한쪽에서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 나타나 참배객들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있다.

● 문필봉(文筆峰)의 전설

만월산 명주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님들이 참선하고 공부하는 강원(講院)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 빨리 깨치기 위해서는 많은 숙설이 있었을 것이다.

만월산은 해발고도 628.1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명주사에서 하행하다가 부모탑 앞을 조금 지난 언덕에서 만월산을 바라보면 산 끝이 붓끝 또는 죽순처럼 뾰족하게 보이는데 이를 풍수에서는 문필사(文筆砂)라 하여 상룡격(上龍格)이 면 문장이 출중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귀와 명예가 널리 알려진다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숭상하였다.

이 절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이 그곳에 올라가 기도하면 도를 깨친다는 전설이 전하며, 명주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고시 공부의 요람으로 합격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성전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출세한 인물들이 있었다.

절의 규모에 비하여 부도탑(僧塔)이 많은 것도 문필봉(文筆峰)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본관은 강릉(江陵), 호는 매월당(梅月堂), 법호(法號)는 설잠(雪岑)이다. 한양의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나 3세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5세 때 이미 글을 지어 신동이 되었다. 세종대왕으로부터 오세(五歲)라는 별호를 받았다.

1455년 21세 되던 해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켜 단종을 몰아내자 3일간 통곡하고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사른 뒤 승려가 되어 유랑하였다. 이때 거열형(車裂刑)에 처해 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람으로 옮겨 노랑진에 임시 매장한 생육신의 한사람이었다. 저서에는 만포사저포기, 금오신화, 유금오록이 있다.

47세(성종 12년(1481))에 안씨(安氏) 아내를 맞아 환속(還俗)하였으나 폐비 윤씨 사건으로 다시 승려가 되어 관동지방을 찾았으며 당시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과 교분으로 법수치리 검달곡(黔達谷)과 설악산에 머물며 자연을 벗 삼아 쓴 100여 편의 시가 관동일록(關東日錄)에 전한다.

● 연파당(蓮坡堂) 스님의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表忠祠禪敎兩宗都摠攝)

도총섭은 조선시대 승직 가운데 최고의 직위로 1566년(명종 21년) 선교 양종과 함께 승직제인 양종 판사직이 없어지고 선조 이후에 새로 생겨난 승직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宣祖)는 전국에 의승군(義僧軍)의 결기를 요청했고 이때 일어난 노승(老僧) 서산대사 휴정(休靜)에게 팔도선교십육종도총섭의 직을 제수했다.

표충사란 임진왜란 때의 구국승장(救國僧將)인 서산·사명 등의 공훈을 기려 밀양·해남·묘향산의 3곳에 세운 국가적 기념사이다. 이 3곳의 표충사마다 각각 도총섭을 둔 것이다.

● 연파당(蓮坡堂) 스님의 석왕사도원장(釋王寺都院長)

석왕사(釋王寺)는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면 사기리 설봉산(雪峯山)에 있는 절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 무학대사(無學大師)의 해몽을 듣고 왕이 될 것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이성계가 왕이 된 뒤 큰 절이 되었으며 1401년(태종 1년)에는 태조가 16일을 머물면서 직접 동구에는 소나무를, 뜰에는 배나무를 심었는데 그 뒤 소나무의 벌목을 금하고 좋은 배는 진상했다고 한다. 같은 해 5월 절의 동쪽에 이성계의 명으로 태종이 별궁을 짓도록 했다. 태종 때는 모든 절의 재산이 몰수당했으나 태조의 원당(願堂)이었던 귀주사와 석왕사만은 제외되었다.

석왕사에는 여말선초의 건물로 알려진 응진전(應眞殿)과 호지문(護持門)이 있으며 1732년(영조 7년)에 개수한 대웅전·영월루·홍복루·범종루·옹비루 등이 있고, 31본산 시대에는 여러 전각을 갖춘 대가람이었으며 48개의 말사를 관장했다. 이런 왕실 원찰(願刹)에서 연파당 스님이 사찰 내 최고 지위인 도원장(都元長)을 하셨으니 당시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 진영각(眞影閣)내 고승(高僧) 영정(影幀) 소실(燒失) 현황

진영각(眞影閣) 안에는 환성당(喚醒堂)을 비롯하여 이 절과 관련된 17분의 고승 영정이 일제 강점기까지 봉안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모두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고승진영 내역】

환성당(喚醒堂), 연파당(蓮坡堂), 무하당(無瑕堂), 학운당(鶴雲堂), 인곡당(麟谷堂), 용악당(嶺嶽堂), 원봉당(圓峰堂), 대은당(大隱堂), 영운당(影雲堂), 몽암당(夢庵堂), 설봉당(雪峰堂), 추암당(秋庵堂), 월허당(月虛堂), 함허당(咸虛堂), 인담당(印潭堂), 성월당(性月堂), 의룡당(義龍堂)

■■■ 성보 문화재

역사에 비하면 유물이 매우 적은 편이다. 명주사의 성보 문화재로는 1704년(숙종 30년)에 조성된 동종이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도내 소재 부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부도군도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현존 건물로는 극락전과 삼성각, 요사 등이 있다. 사찰의 서쪽으로 작은 폭포가 흐르는 맑은 계곡이 있는데 폭포 옆 암석에는 문성폭포(文聲瀑布)가 암각 되어있다.

● 명주사 동종(銅鐘)(강원도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 : 1980, 2, 26)

여로부터 어성십경(魚城十景) 중에는 명주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인 “산사모종(山寺暮鐘)”을 으뜸으로 쳤다.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범종으로 1704년(숙종 30년)에 제작되었으며, 높이 83cm, 둘레 2.6m이다.

재질은 청동으로 용뉴는 동종의 몸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늘프며, 쌍룡이 다소 형식화된 느낌을 준다. 네 곳에 기하학적인 사선문(斜線紋)의 정사각형 연곽이 있고, 연곽 안에는 돌출된 9개의 연뢰가 있다. 연곽 사이의 빈 공간에는 윗부분에 원문범자(圓紋梵字)를 돌려가며 네 곳에 돌을새김하고, 아래로 머리 광배를 갖춘 4구(四軀)의 합장천부보살상(合掌天部菩薩像)이 있다. 그 아래쪽에는 명문이 돌을새김 되어있으며 하대



명주사 동종

는 화려한 덩굴무늬 띠가 둘러졌다.

특히 원문범자 아래에 보살상이 있는 모습이 하나의 조(組)를 이루어 연곽과 연곽 사이의 네 곳에 시문 되었는데 이 원문범자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대를 대신하고 있다. 종 아랫부분이 돌을새김으로 처리된 문양 등으로 양감이 있는 편인 이 동종은 종신의 모양이나 연곽과 하대의 위치 등에서 한국 종의 전통 형식을 따르고 있음이 엿보인다.

다소 쇠잔한 듯한 쌍룡, 종신의 공간구조 및 저부조(低淨彫)의 돌을새김 선[陽刻線]으로 처리된 문양 등에서 기하학적으로 변모된 18세기 범종의 양식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명문에 의하면 이 종은 원래 태백산 대흥사(大興寺)의 대종으로 100근(斤)의 중량을 들어 개주(改鑄)한 것이다.(한국범종에 관한 연구, 조선 조종의 특징 ⇒ 염영하, 범종 11, 1988)

2005년에 범종각을 지어 불전 사물 중 동종만을 안치하였으며 현판은 아직 없다.

▶ 범종의 훼손

종의 표면에 정충득수복발원(鄭忠得壽福發願)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명주사 동종이 강원도 유형문화재임을 감안하면 동종의 원형보존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 부도군(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6호 지정 : 1991. 2. 25일)

부도는 승려의 무덤을 상징하여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두는 곳이다. 명주사 부도(승탑)는 조선 후기 도내 소재 부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12기로 7기는 원당형(圓堂形) 5기는 석종형(石鐘形)이며, 부도 외에 4기의 석비(石碑)가 있다.

이 부도와 석비들은 옛 명주사 터 입구 삼거리 우측 능선에 월하당(月虛堂) 부도와 인곡당선사비(麟谷堂禪師碑)가 함께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의 민가 뒤쪽에 안곡당(安谷堂), 호월당(皓月堂), 청신거사상정(淸信居士尙淨), 연파당(蓮坡堂), 충암당(忠庵堂)의 부도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또한 명주사 계곡 입구의 오른쪽 길옆에 중봉당(中峯堂) 부도가 그리고 명주사 바로 밑에 무허당(無瑕堂), 인허당(麟虛堂), 호월당(皓月堂), 충암당(忠庵堂), 설봉당(雪奉堂)의 부도와 연파당선사비(蓮坡堂禪師碑), 학운당대선사비(鶴雲堂大禪師碑), 용악당대선사비(龍嶽堂大禪師碑)의 석비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들 부도와 석비는 1994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져 보존하고 있다.



명주사 부도군(부도 12기, 탑비 4기)



▶ 부도 12기 현황

⇒ 앞열 : ① 덕신당수용대화상(德信堂壽龍大和尚) ⇒ 불기 2521년 서기 1977년 음력 1월 9일

입적(入寂) ② 안곡당(安谷堂) ③ 중봉당(中峯堂) ④ 호월당(皓月堂) ⑤ 충암당(忠庵堂) ⑥ 무허당(無瑕堂) ⑦ 인허당(麟虛堂) ⑧ 청신거사상정(淸信居士尙淨)

⇒ ① 번과 ②번 부도 사이의 대좌석(臺座石)은 성월당(晟月堂) 부도 자리이나 도난을 당하였음, 보월당 부도는 좌대까지 도난당하여 흔적도 없음.

⇒ 뒷열은 석비 포함 순서 : ① 용악당대선사비(龍嶽堂大禪師碑) ② 설봉당(雪奉堂) ③ 학운당정원대사비(鶴雲堂正原大師碑) ④ 추암당(楸庵堂) ⑤ 연파당대선사비(蓮坡堂大禪師碑) ⑥ 연파당(蓮坡堂) ⑦ 인곡당선사비명(麟谷堂禪師碑銘) ⑧ 월허당(月虛堂)

▶ 석비 4기 현황

- ① 용악당대선사비(龍嶽堂大禪師碑)
- ③ 학운당정원대사비(鶴雲堂正原大師碑)
- ⑤ 연파당대선사비(蓮坡堂大禪師碑)
- ⑦ 인곡당선사비명(麟谷堂禪師碑銘)



● 문화재(文化財) 도난(盜難)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화재 도굴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일제와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난 이후 현상으로 복장 유물과 부도탑 도괴, 무덤을 파헤쳐 문화재를 절취하는 사건을 가끔 접하는데 이중 부도탑 도괴 사건이 가장 빈번하다.

승탑(淨屬) 속에서 사리와 사리 장엄구 일체를 털어 가는 것도 부족해서 부도와 받침대까지 훔쳐 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 살펴 보았다.

도난당한 양양 명주사 성월당 부도와 보월당 부도 및 받침대 (출처:문화재청)

종별	명 칭	수량	높이(cm)	조성	도난장소	도난일시	소유자	연 락 처
비 지 정	명주사 성월당 (晟月堂) 부도, 보월당 부도 및 받침대	3점	성월당 117cm 보월당 172cm	조선 시대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380	'04.11.6	명주사	문 화 재 청 080-290-8000

● 금당(金堂)인 극락전(極樂殿)

극락전의 주불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이다. 극락보전(極樂寶殿)이라고도 하며 아미타전(阿彌陀殿), 무량수전(無量壽

殿)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정토에 있다고 봄으로 보통 극락전의 전각은 문 방향을 남향으로 놓되, 아미타불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게 놓는다.

아미타불은 부처임에도 열반에 들지 않고 극락세계에 머물며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부처인데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극락세계에 머물기를 서원했다. 사후 극락왕생을 위해 49재 모시는 등으로 많이 찾는다.



명주사 극락전



극락전 아미타삼존불

명주사는 1990년대 초반 해도 어성전리 마을에서 절로 향하는 입구 양편에 사각의 화강암 석재에(거칠게 다듬었으며 3m 정도 되었음)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이라고 크게 음각하여 붉은 칠한 기둥이 있었다.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을 서원한다.”는 뜻이 담겼다 하겠다.

명주사 극락전은 1963년 수룡(壽龍)스님이 앞면 3칸(360×360×360), 측면 3칸(240×270×240) 규모의 팔작지붕의 금당을 복원하였다. 편액과 주련은 최근에 중건하면서 달았다.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로서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으며 좌측에는 관세음보살이 우측에는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다.

후불탱화로는 아미타불을 중심에 둔 극락회상도를 봉안하였다. 우측에는 신중탱을 모신 신중단(神衆壇), 좌측에는 영가를 모시는 영가단(靈駕段)을 두었다.

현재는 극락전이지만 1980년대 초까지는 무량수각(無量壽閣)으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친필이다. 이 편액은 현재 신흥사 유물전시관에 보관 중이다.



명주사 무량수각



해남 대흥사 무량수각

※ 두 현판은 예서체로 글씨는 인쇄한 것처럼 같으나 명주사는 호를 약완(若阮)이라 하고 낙관을 찍었으나 대흥사(전남 해남) 무량수각은 호를 노완(老阮)이라 쓰고 낙관이 없음.



● 삼성각(三聖閣)

삼성(三聖)은 각각 재물과 수명, 복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불교가 우리 전통 신앙인 삼신신앙(三神信仰)을 포용한 모습이다. 칠성(七星)은 복두칠성을 말하는데, 별나라의 주군(主君)으로 인간의 복과 수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나반존자(那畔尊者)라고도 불리는 독성(獨聖)은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홀로 깨달아서 성인의 위치에 올라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한다. 또, 사찰에 따라서는 독성과 산신과 용왕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 신앙이었으나 불교가 재래 신앙을 수용하면서 산신은 부처님을 지키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되었다. 산신은 백발노인으로 표현되고, 호랑이는 산신의 지시에 따르는 영물로 늘 산신 옆에 배치되어 있다. 산신은 자식을 원하는 사람과 재산이 일기를 기원하는 신도들의 산신 기도가 많이 행해진다.

이들은 모두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들로서, 하근기(下根機)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름을 전(殿)이라 하지 않고 각(閣)으로 일컫는 것이다.

명주사 산신각은 2002년의 태풍으로 무너진 뒤 새로 지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삼성각에는 칠성(七星)이신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좌측에는 독성(獨聖)인 나반존자, 우측에는 산신(山神)이 협시하고 있다. 후불탱으로는 칠성탱이 조성되어 있다.



명주사 삼성각



삼성각 (좌부터 나반존자, 치성광여래, 산신령)

● 요사(寮舍)채

명주사 요사채는 2동으로 1동은 금당 바로 옆에 위치하였으며, 명주사 현판이 부착되어 있고 종무소와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 5칸에 측면 2칸으로 맞배지붕이다.

조성 연대는 1979년이다. 이 건물 전면과 후면에는 현 주지이신 죽전지혜(竹田智慧) 스님의 한글로 된 화두(話頭) 선문(禪問)이 기둥마다 주련으로 붙어있고 격자 문살 창호지(窓戶紙) 마다 스님 특이(特異)의 선화(禪畵)가 차분히 단순한 색상으로 그려있고 그 옆에 그림을 설명하는 선시가 쓰여 있어 아름다움과 스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한다.

특히 남쪽 벽에는 주지 스님의 벽화가 2점 있는데 1점은



명주사 주지이신 죽전 지혜스님의 격자 문살 창호지 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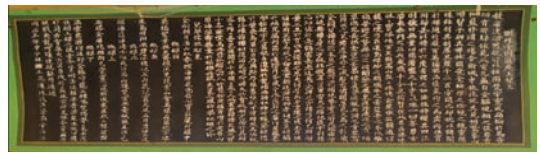
체로금풍(體露金風)이다. 벽암록 제27칙의 本則에 나오는 말로 운문선사께서 '가을바람에 온몸이 드러났구나'하는 뜻이다. 그 옆의 벽화는 무사무념(無思無念)으로 사물(四物)을 두드리고, 대나무 피리를 부는 동자승들이 천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 다른 동(棟)의 요사는 종무소 뒤쪽 건물로 2021년에 새로 건립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전면 6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ㄱ”자 건물로 공방간으로 쓰이며 여유 있는 방은 빈객의 숙소로 쓰인다고 한다. 단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무소 앞 뒷마루 위 안쪽 벽에는 원통암 상량문과 원통암 현판이 걸려있다. 원통암 현판에는 조성한 년 도가 동치원년 임술수성지월(同治元年壬戌壽星之月)로 되어있어 풀이하면 1862년 음력 8월이 된다.



원통암 현판



원통암 상량문

● 일주문(一柱門)

일주문이라는 말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있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사주(四柱)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일반적인 가옥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있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독특한 양식으로 세운 것은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 즉, 사찰 금당(金堂)에 안치된 부처의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행자는 먼저 지극한 일심으로 부처나 진리를 생각하며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건축양식은 주로 다포계(多包系)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에 많은 현판(懸板)을 걸어 사찰의 격(格)을 나타내기도 한다.

명주사 일주문은 금당에서 약 450m 전면에 있으며, 2021년도에 시작하여서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건축 연 면적 40.18㎡이고, 높이 8.8m이다, 특이한 점은 일주문의 기둥을 눈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 2m까지는 돌기둥(하부 둘레 137cm, 상부 둘레 127cm)을 세우고 그 위에 목재기둥을 세웠다, 양각된 현판은 “만월산명주사(滿月山明珠寺)”이며 글씨는 “설악산인(雪嶽山人) 사문적광(沙門寂光) 지혜(智慧)”로 되어있다. 아직 단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 포대화상(布袋和尚) 석상(石像)

2017. 9. 5일 포대화상을 경기도 이천 무량사에서 이운(移運)해 모셨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의하면 포대화상은 명주(明州) 봉화현(奉化縣) 출신으로 당나라 말기부터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름은 계차(契此)이며, 항상 커다란 포대 자루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포대화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포대화상은 울챙이처럼 볼록 튀어나온 배불뚝이



새로 건립된 명주사 일주문



언제나 화통하게 웃는 포대화상



모습을 하고서 늘 화통하게 웃고 있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시받은 물건을 포대 속에 넣고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눈 속에 누워 있어도 그의 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으며 사람의 길흉을 족집게처럼 잘 알아 맞혔다고 한다.

전등록에는 포대화상이 지었다는 몇 편의 계승도 실려 있다. “발우 하나로 천 집의 밥을 먹고 외로운 몸은 만 리에 노닌다.(一鉢千家飯 孤身萬里遊)” 는 시를 통해 구름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우리는 포대화상을 통해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부처라는 소신과 함께 상처받은 중생들을 종횡무진 치유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 극락전(極樂殿) 외부 벽화(壁畵)

극락전 동편 벽에는 4점의 벽화가 죽전지혜(竹田智慧) 주지 스님의 뛰어난 솜씨로 그려져 있다. 다만 포대화상의 그림은 앞에서 설하였기 생략한다.

▶ 조과도림선사(鳥窠道林禪師)와 백낙천(白樂天) 이야기

중국 당송 8대 문장가 중 백낙천(白居易, 772~846)이 향주 지사로 부임한 후 자신의 학문과 지혜를 과신하여 학문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 골탕을 먹이는 일을 즐겼다.

향주에는 부처님으로 추앙받는 도림선사가 있었다. 하루는 백낙천이 도림선사를 찾아갔다. 도림선사는 사찰 경내의 큰 고목 나무 꼭대기에 새집처럼 작은 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선사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사의 단순한 대답에 백낙천은 소리 높여 웃었다. “소문에 고승이라고 해서 귀한 시간을 쪼개 찾아왔는데, 그런 말은 3살 아이도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요?”

도림선사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외다.” 백낙천은 언행일치(言行一致) 지행일치(知行一致)의 교훈을 얻었다.

▶ 태전선사(太轉禪師)와 한유(韓愈) 이야기

당송 팔대가 중 한 명인 한유(韓愈 768~824)는 늘 불교를 심하게 비방을 했었다. 한번은 한림학사라는 벼슬에 있을 때 “불골표(佛骨表)”라는 사리 신앙을 비방하였다가 임금에게 노여움을 사서 팔천 리나 떨어진 곳인 조주(潮州) 지역의 자사라는 직위로 좌천이 되었다.

이 지역에는 “태전선사(太轉禪師)”라는 고승이 “축봉령”에 머물며 오직 수도에 전념하였다. 한유는 여기서도 불교를 깎아 내리기 위해 이 지역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인인 “홍련(紅蓮)”으로 하여금 태전 스님을 유혹해서 파계를 계획하였다. 홍련에게 100일 안에 태전 스님을 유혹해서 파계를 시켜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지 못한다면 엄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홍련은 자신의 미모가 뛰어난으로 자신있다고 대답하고 스님께서 계신 축령봉으로 들어갔다. 도착하여 스님께 인사를 드리며 스님을 모시고 백일기도를 하려고 하니 허락을 해 달라고 간청하여 스님의 승낙을 받았다.

기생 홍련은 쾌재를 부르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스님께서서는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실 뿐 그 외는 일체 눈길을 주지 않으

섰다. 약속한 백일은 빠르게 다가오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겨 홍련은 매우 다급해졌다.

홍련은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백일째 되는 날에 스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대로 아뢰었다. “이대로 내려가면,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答)해 주시기를 “걱정하게 말라 해결책을 전해 주겠다.”고 하셨다.

홍련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치마를 펼친 다음 한시(漢詩)를 적어주셨다.

十年不下祝靈峰(십년불하축령봉) 십 년(十年)을 축령봉을 내려가지 않고

觀色觀空卽色空(관색관공즉색공) 색(色)을 관(觀)하고 공(空)을 관해 보니 색(色)이 공(空)하구나.

如何一滴曹溪水(여하일적조계수) 어찌 조계수 한 방울이라도

肯墮紅蓮一葉中(금타홍련일엽중) 홍련의 잎(葉) 가운데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 후 한유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스님의 가르침으로 대오(大悟)하였다.

▶ 달마(達磨)와 혜가(慧可)의 단비도(斷臂圖)

달마가 소림사 석굴에서 면벽 수도를 하고 있을 때 신광(神光)이 찾아와 제자로 받아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스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때마침 함박눈이 아침까지 퍼부어 허리까지 도는데도 신광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서야 달마가 무슨 까닭인지 물었다. “감로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달마가 다시 이르기를 “큰 법을 구하려면 너의 믿음을 바쳐라”고 말했다.

신광은 지체 없이 왼쪽 팔을 잘라 파초잎에 싸서 바쳤다. “그대가 팔을 끊어 믿음을 보이니 법을 구할 만 하구나” 그때서야 제자가 되어 법을 구할 만 하다는 뜻으로 혜가(慧可)라는 법명을 얻었다.

그러나 혜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였다. “스승께서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소서”

달마가 혜가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케 해 주리라” “스님!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진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느니라” 혜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하여 혜가는 달마의 가르침으로 선종 제2조가 되었다.

● 극락전(極樂殿) 주련

極樂堂前滿月容(극락당전만월용)	극락당 앞에는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오르고
玉毫金色照虛空(옥호금색조허공)	옥호에 금빛 찬란한 빛 내어 허공을 비추시네
若人一念稱名號(약인일념칭명호)	만약 사람들이 한 생각으로 그 명호를 부른다면
頃刻圓成無量功(경각원성무량공)	한순간에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이루리

● 옛 명주사지(明珠寺址)

옛 명주사지는 현 사찰에서 도로를 이용해 1.3km 정도 내려오면 “천년고찰 명주사 옛터”라는 간판이 보인다. 근처에 있었던 중봉당선사탑(中峯堂禪師塔)도 옮겨가서 아무것도 없다. 1897년 화재로 소실되고 나서는 현 사찰로 옮긴 후 발로 경작이 되었으나 최근 언제부터인가 휴경이 되면서 잡목과 넝쿨만 무성하다. 지적도상으로는 어성전리 368, 369번지로 사찰이 존립하던 당시에는 없던 도로가 발 가운데로 개설되어 통행한다.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펴낸날 | 2022년 12월

편 집 |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펴낸곳 | 양양문화원 033) 671-8762

만든곳 | 대양프리컴 033) 257-3400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이미지의 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